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曹点煥

學父母의 初等學校 平生教育
프로그램 參與 實態 研究

A Study on the Realities of Parents'
Participation in Elementary School Lifelong
Educational Program

2003年 8月

漢城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金 東 喆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曹点煥

學父母의 初等學校 平生教育
프로그램 參與 實態 研究

A Study on the Realities of Parents'
Participation in Elementary School Lifelong
Educational Program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8月

漢城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金 東 喆

金東喆의 敎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定함

2003年 8 月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目 次

I. 緒論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의 目的	3
3. 研究 內容	4
4. 研究의 制限點	4
5. 用語의 定意	4
II. 理論的 背景	
1. 平生教育의 意義	5
2. 成人平生教育의 理解	8
3. 學校 平生教育의 要請	12
4. 學校 平生教育 運營 現況	14
5. 學校 平生教育의 問題點	19
6. 外國의 學校 平生教育	22
7. 先行研究의 考察	25
III. 研究 方法	
1. 調査 對象	29
2. 調査 道具	29
3. 資料 處理	31
IV. 研究 結果 및 解釋	
1. 平生教育 프로그램에 對한 參與度 調査	32
2. 學校 平生教育 프로그램 參與 實態	37
3. 學校 平生教育 프로그램 參與 動機 및 滿足度	48
4. 學校 平生教育 運營에 對한 要求	53

V. 要約 吳 結論

1. 要約.....	67
2. 結論.....	70
3. 提言.....	71

參考文獻.....	72
-----------	----

英文抄錄.....	74
-----------	----

附錄.....	78
---------	----

表 目 次

<표 1> 2001년도 교육부 지원 평생교육 시범학교 현황.....	15
<표 2> 2001년도 각 시도 교육청 평생교육 시범학교 현황.....	16
<표 3> 시·도별 1학교 1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7
<표 4>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비율.....	18
<표 5>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율.....	19
<표 6> 조사 대상자의 배경변인별 특성.....	29
<표 7> 설문지의 영역별 구성 내용.....	30
<표 8> 학교 외 타 기관 평생교육 참여 경험.....	32
<표 9> 학교 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33
<표 10> 학교 외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34
<표 11> 평생교육을 위한 월 부담액.....	35
<표 12> 평생교육 기관으로 가장 적당한 곳.....	36
<표 13> 2002학년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37
<표 14> 2002년 이전 학교 평생교육 참여 프로그램.....	38
<표 15>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형태.....	39
<표 16>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간.....	40
<표 17> 학교 평생교육 참여 프로그램 운영 기간.....	42
<표 18>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당 실시 횟수.....	43
<표 19>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회당 교육 시간.....	44
<표 20>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당 교육비.....	45
<표 21>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당 참여 인원.....	46
<표 22> 학교 평생교육 참여 프로그램 강사 현황.....	47
<표 23>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48
<표 24> 학교 평생교육 강사에 대한 만족도.....	49
<표 25>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	50
<표 26>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만족 이유.....	51
<표 27>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불만족 이유.....	52
<표 28>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	54
<표 29>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55
<표 30>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56

<표 31>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당한 운영 시간.....	57
<표 32>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정 운영 기간.....	58
<표 33>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당 실시 횟수.....	59
<표 34>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회당 교육 시간.....	60
<표 35>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당 적정 교육비.....	61
<표 36>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당 적정 인원.....	62
<표 37>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 강사.....	63
<표 38>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의 요건.....	64
<표 39>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 영역.....	65
<표 40> 가장 선호하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66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21세기로 진입하면서 세계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의 자산이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는 그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한정된 학교 내 교육만으로는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없고 평생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평생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지식과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가름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평생교육이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여가시간을 활용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도 많아져 날로 다양해지는 평생교육 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 복지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어느 지역이든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평생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장이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함)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실현을 통한 교육 복지국가 건설의 일환으로 학교를 이용한 성인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 평생교육법 제25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개방 및 활용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평생학습장화를 촉진하고 열린 교육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¹⁾

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육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1970년대 한국 지역사회 학교후원회(현 한국 지역사회 교육협회의의 전신)의 ‘학교 운동장 개방운동’으로 시작되어 학교시설 개방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지역사회학교 운영, 그리고 새마

주1) 교육인적자원부(2001), 『평생교육백서』(5호), 서울 : 남형문화(주), p.43.

을 어머니교실, 학부모 교실운영, 취미·교양 교육, 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왔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학도 평생교육원을 개설·운영하여 다양한 학습자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학교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83년 사회교육법 시행으로 시·도 교육청이 사회교육 업무를 시행하게 되면서 학부모교실 등의 사회교육에 관심을 두고 시행하였으나 주요 업무로 받아들여지고 활성화된 경우는 드물었다.²⁾

최근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학교가 평생교육을 하도록 명시한 것을 계기로 초·중·고교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평생교육법 4장 25조와 관련해서 볼 때 학교의 시설과 교육적 기능은 평생교육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데 기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학교는 아동·청소년의 교육공간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교육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제도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5일 근무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평생교육의 요구가 팽배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 중심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학교는 학교교육의 테두리를 넘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열린 학교’로의 변화가 중요시 되고 있다. 학부모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시간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는 평생교육의 잠재적 수요층에 해당하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의 시설과 설비, 자원을 활용하여 그들의 기초적 학력보완과 교양 및 취미 차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그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가 맡은 학부모 평생교육의 역할인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의 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여타 학교와 의 편차가 심하다. 또한 시범학교의 운영을 통해 학교의 평생교육 모델을 정립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대부분 시범학교 운영이 끝나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축소되면서 자연 소멸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

주2) 홍숙희(2002),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경기교육』 2002 가을(통권156호).

합하지 못하는 학교 평생교육 운영의 부실함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학교측의 운영 의지 결핍과 교사들의 업무 과다 및 학부모·주민들의 저조한 호응도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당국의 관심과 의지가 고조되던 지난 몇년동안은 학교 평생교육이 크게 활성화 되는 듯하다가 요즘에는 다시 시들해져 가는 양상이다. 따라서 학교 평생교육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인식을 제고시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학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고, 인적자원과 학교의 유허 시설을 활용해 보다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와 인식을 함양하고, 학교 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학부모·주민들이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의 유형과 학교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를 파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석 없이 현실에 적합한 학교 평생교육의 바람직한 발전 및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제한적이거나 평생교육의 기회와 여건이 열악한 도·농 복합도시의 읍·면 단위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하여 학교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研究의 目的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도를 알아본다.

둘째,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만족도를 살펴본다.

넷째,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3. 研究 内容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정도를 배경변인(연령·학력·소득·소재지)에 따라 분석하여 알아본다.

둘째,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를 배경변인에 따라 분석하여 파악한다.

셋째,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평생교육에의 참여 동기 및 만족도를 배경변인에 따라 조사하여 분석한다.

넷째,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배경변인에 따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4.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는 도·농 복합시인 경기도 N시의 읍·면에 소재한 4개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학교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209부를 최종 선정하여 조사·분석하였고 설문지에만 의존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설문지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임의로 작성하였으므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대상을 도·농 복합시인 N시의 읍·면에 소재한 4개 학교의 학부모로 한정하였다.

5. 用語의 定意

※. 학교 평생교육 : 넓은 의미의 학교 평생교육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규 학교 교육과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역주민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만으로 한정한다.

II. 理論的 背景

1. 平生教育의 意義

1)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또는 국가에 따라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고 또한 표현상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나라마다 다른 사회·경제적 사정과 문화적 조건 등에 따라서 평생교육에 대한 해석과 접근 방식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외 학자 및 관련 연구 자료에서 내리고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적 평생교육의 창시자인 랭그랑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계속되는 교육의 과정은 통합적인 구조가 필요한 과정이며, 그 원리는 ‘평생교육’ 이고 이를 위해서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교육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³⁾

유네스코 평생교육 연구소장인 다베(Dave)는 평생교육이란 “개인과 집단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하여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발달을 성취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인생의 다양한 단계와 영역에 있어서 가능한 완전한 발전을 이룩할 목적으로 개발을 촉진하고 고취시키기 위한 모든 형식적(formal), 준형식적(non-formal), 비형식적(informal) 학습을 포함한 종합적, 통일적인 아이디어이다. 이것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진보 양자가 결합된 개념이다”고 했다.⁴⁾

장진호는 평생교육을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계속적 학습의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인간성의 조화적 발달을 꾀하며 변화하는 현대적 생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창조적으로 개척해 갈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인간화 교육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여 평생교육의 내용면, 실질면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피교육자를 주체적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의 궁극적인 이념을 인간교육에 두고 있는 점이다.⁵⁾

주3) 김종서 외(1987), 『평생교육 원론』, 서울 : 과학교육사, p.42

주4) Dave, R. H.(ed)(1976), *Foundations of Lifelong Education*, Oxford : Pergamon, p.39

한편, 김도수는 평생교육이란 “개인과 집단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적(私的) 교육의 단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공적(公的) 교육의 단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간의 교육을 위하여 기존의 모든 교육을 수직적·수평적으로 통합·재편성하려는 교육체제 개혁의 지도이념이다.” 라고 정의한 바 있다.⁶⁾

이상과 같이 국내·외 학자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개념규정들을 기초하여 평생교육의 개념을 규정해 보면, 평생교육은 누구에게나 어느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이 제공되는 인간의 삶과 성장을 총칭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념 추구를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 등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하며,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2) 평생교육의 특성

평생교육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전체성, 통합성 유연성, 민주성, 자기충실성 등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전체성이란 개인의 일생에 걸친 교육에 관계한다. 평생교육은 취학 전 초등, 중등, 고등수준의 학교 및 대학에서의 교육과 학교 외에서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하나의 유기적인 체제로 통합할 것을 시도한다. 또한, 통합성의 확보는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이 상호 연관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한다. 가정은 학습이 행하여지는 최초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일생에 있어서의 학습체계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전개되는 사회교육은 평생교육체계를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물론 정규의 학교와 대학도 가정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통합적 교육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⁷⁾

박용현·최정숙의 평생교육에 관한 개념상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⁸⁾

주5) 장진호(1983),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서울 : 대은출판사, p.204.

주6) 김도수(1994), 『사회교육학』, 서울 : 교육과학사, p.142.

주7) 조용하(1996), 『사회교육과 여가』, 서울 : 교육과학사, pp.131-132

주8) 박용현·최정숙(1989), 『교육사회학』,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pp.256-258.

첫째, 평생교육은 지역주민이라는 다양한 개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교육은 그 교육 내용이 비교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점에서 그 대상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데 반하여, 사회교육은 연령·취미·직업·경험·전문성·계층·욕구 등에 있어 각기 많은 차이를 가지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평생교육은 자유로운 교육을 특색으로 한다. 평생교육은 자각된 개인이 기본 단위가 되어, 주로 학습자의 자발적인 동기와 자율성을 기본적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지도자와 추종자, 권위자와 초심자 등의 위계질서와 역할에 따른 간격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며, 모든 학습관계는 평면적으로 이루어지고 경험의 교환과 분담 및 공동연구와 작업이 강조된다.

셋째, 평생교육은 다양한 학습활동을 그 특성으로 한다. 교육내용 또는 프로그램은 일반교양이나 체육·레크레이션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직업연수·생활개선·사회개조·지역사회개발 등을 위하여, 철학·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응용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괄하게 된다.

3) 평생교육의 요청

오늘날 사회의 급속한 변동은 인간의 교육적 욕구충족이나 자기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제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의무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만으로는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생교육은 새로운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념이자 새로운 교육제도로 요청되고 있다.

오늘날 평생교육이 우리사회에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필요성을 랭그랑은 다음과 같은 아홉가지 측면으로 정리하고 있다.⁹⁾

- (1) 인간의 이상·관습·개념의 가속도적 변화
- (2) 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이 교육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를 초래한 점
- (3) 과학기술의 진보와 산업·직업구조의 변화
- (4) 정치의 변동

주9) Lengrand, P.(1975), *An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Paris : UNESCO Press, pp.41-42

- (5)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정보처리능력의 필요성 증대
- (6) 여가의 증대와 활용
- (7)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위기
- (8) 현대인의 정신과 육체의 부조화
- (9) 이데올로기의 위기에 있어서 정체감(identity)의 혼란 등이다.

여기서는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의의를 위와 같은 평생교육론 대두의 사회·시대적 상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동과 함께 ‘지식 기반 산업’이라 불리는 4차 산업의 비중이 급속히 증대됨에 따른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에 따라 평생학습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둘째, 과학기술의 가속적인 발전과 그로 인한 직업세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평생에 걸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계속교육과 평생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평균수명 연장 및 정년제도의 변화, 평생직장 개념의 퇴조,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등의 새로운 사회 현상이 대두됨에 따른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넷째, 교육기회 불균등 현상을 해소하고 끊임없는 자기 성장과 자아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2. 成人平生教育의 理解

1) 성인평생교육의 정의

성인평생교육의 핵심적 의미는 교육대상을 분류 준거로 하여,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주된 교육대상은 성인이며, 교육방법은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 모두를 포함한다. 평생교육 개념 중 성인기 이후의 계속교육활동이 여기에 포함되며, 성인을 위한 각급 정규학교에서의 성인교육활동도 성인 평생교육으로 간주함에 큰 의미를 둔다. 이의 근거로는, 1999년 8월 31일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사회교육법의 제명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 공포한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과 같은 맥락에서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성인평생교육으로 정의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한상길은 성인교육과 평생교육을 토대로 지칭하는 성인평생교육을 토대로 지칭하는 성인평생교육의 개념을 “모든 형식적·비형식적·준형식적 교육활동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성인들에게 제공하고, 성인들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식의 축적과 능력을 신장시켜 개인적 성장 발달과 사회적 능력을 새롭게 갱신시켜 나가는 총체적 교육과정”으로 정의하였다.¹⁰⁾

평생교육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축성하는 원리라고 볼 때, 미성년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지는 교육활동과 성인들의 역동적인 삶을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함께 연구하는 데는 가 있다. 이제 그동안 소외시켜 왔던 성인대상의 학습활동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사회학적·심리학적·문화적 측면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연구와는 차별성을 분명히 두고 주로 비제도적 생활세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들의 평생교육 실천에 관해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한승희는 “성인평생교육은 그동안의 사회적·문화적·구조적 측면에서 실존 지향적 측면의 교육활동으로부터 탈피하여, 성인 개개인을 중심으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직업교육, 기업교육, 지식산업교육, 인간자본개발교육 등)에 관심을 두고 시장성 있는 학문으로 개조되어야 한다.”고 했다.¹¹⁾

지금까지의 단순한 시설, 교·강사, 교재 등에 의존하여 실천되어 오던 성인교육활동이 좀더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인간의 생활세계 전체를 학습공간으로 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이 형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성인 개개인이 그들의 생활세계 안에서 나름대로 삶을 개선시켜 나가고 내면적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다학문적·다학제적 연구를 전제로 성인평생교육은 실천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인평생교육은 각 사회에서 어른 혹은 성인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식을 풍부하게 해주는 물론 기술적·전문적 자격을 갱신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 자신과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주10) 한상길(2001), 『성인평생교육』, 서울 : 양서원, pp.13-14.

주11) 한승희(1997), 「전환기에 선 한국성인교육 연구」, 『평생교육연구3(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p.109.

총체적 학습과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접근이 인정되는 다문화 학습사회에서 나타나는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계속 교육과 우발적 교육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2) 성인평생교육의 특성

성인평생교육은 취학 전 유아나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과 청소년은 포함하지 않고 성인들만을 학습대상자로 한다.

유네스코(UNESCO)에서도 성인교육이라 함은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근로청소년 및 성인들의 이익과 그들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활동으로서 전통적 학교교육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¹²⁾

따라서 성인평생교육은 성인들만을 위한 교육활동임을 인식하고 성인들의 본질적 특성과 그들의 다양한 경험 그리고 학습동기 유발 요인들을 참작하여 실천되어야 하는 비형식적 교육활동의 특성을 갖고 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한 성인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성인평생교육의 특성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³⁾

(1) 학습참여에 있어서의 자발성

성인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는 달리 강제성과 의무성이 없는 성인학습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 비형식적 또는 무형식적 학습활동이다. 학습목표의 설정, 학습내용 및 방법의 선정, 학습시간의 선택 등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로부터나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강요도 받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 학습 환경을 창출하며 학습참여 여부는 물론 학습의 전 과정을 스스로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2) 교수-학습활동 체제에 있어서의 다양성

성인평생교육은 성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성인들을 위한 비형식적 교육활동으로서 성인의 연령, 신분, 거주지, 직업, 지위, 성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특정 계층만

주12) UNESCO(1985), *The development of Adult Education : Aspect and Trends.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Paris, France, p.37.

주13) 한상길, 전게서, pp.19-21.

을 위한 교육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대상자들의 교육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제공되어지는 뷔페식 커리큘럼 형태에 의한 교육활동이다. 또한 학습방법과 지도자 선택에 있어서도 학습자 중심의 다양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3)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기대효과의 실제 지향성

일반적으로 학교교육 내용은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표준화된 교과과정 중심으로 제공되지만, 성인평생교육은 그 대상이 성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생활, 직업, 여가, 취미 등에 적합한 성인들의 현실적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원하고 있다. 또한 성인들의 학습참여 동기나 학습목표는 그들의 실제생활에 적용 가능한 현실성과 즉시 활용 가능한 실용 지향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4)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대상자인 성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진단하고 목표를 선정하며, 자원을 선정하고 학습전략을 구상하며 학습 진전도를 평가한다. 즉,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통제로부터 독립하려 하고 학습과정 전체에 있어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며, 학습의 의미 이해나 학습목표 결정, 그리고 학습 성취도 평가에 있어서 자율적이다. 결과적으로 학습욕구 진단, 학습참여, 학습내용 선정, 학습방법 및 장소의 선택, 학습결과 평가에 있어서 자기주도성이 매우 강하다.

(5) 학습자 중심의 수평적 관계 학습

성인평생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가 수직적 주종관계가 아닌 수평적 대등한 관계로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지식을 주입·전달해 주는 교사 역할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 조력자 및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학습분위기 조성 및 학습안내 그리고 학습자 의식의 각성과 고양을 촉진시켜주면서 상호간에 친구처럼 가까운 무형식적 관계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수자는 교사의 입장보다는 학습자원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학습자의 축적된 경험이 학습내용으로 또는 학습자원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으므로 학습자가 교수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평생교육에 있어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는 상호 수평적 관계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6) 교육구조 내의 이동과 선택의 융통성

모든 교육제도는 학습자로 하여금 주어진 범위 안에서 종적으로나 횡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선택의 범위가 넓다. 그리고 개인들은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방해됨이 없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특히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성인평생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이다. 학습자로서의 성인들은 생활양식이 다양하며 생활구조 역시 복잡하다. 따라서 성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학습방법, 학습장소, 학습기간, 학습시간 등이 조정·선택 가능한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내용에 따라서도 적합한 교수자가 선택될 수 있다.

(7)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학습

성인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시설이나 기관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적은 경비와 시간을 활용하여 그들이 원하는 학습기관이나 시설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물적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요구되는 것도 하나의 성인 평생교육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3. 學校 平生教育의 要請

학교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어느 지역이든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평생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기관이다. 평생교육법 제25조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정규 학생 외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장의 터전을 제공하여 평생학습사회체제 구현에 기여할 것을 명시한다.

학교교육이 아동,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별개로 존재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학교 평생교육 또는 성인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전문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학교교육과 별개로 주장할 지라도 학교교육, 고등교육과 공통된 관심 영역을 서로 통합하거나 협

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 평생교육의 성공 여부는 학부모 대상 학교 평생교육이 학교교육과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정규학생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학교만큼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도 없다. 학교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지역주민이 학교만큼 접근하기 쉬운 곳도 없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평생학습을 스스로 꾸려나가도록 준비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설 및 자원을 바탕으로 정규학생 이외의 다양한 계층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의 균등한 평생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에서의 평생교육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¹⁴⁾

이상에서 보듯 학교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이유를 몇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는 누구에게나 교육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국민전체 또는 지역주민 전체가 주인이므로 이들 주민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최근 학교교육에 대한 책무성 요구는 정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교육 욕구 충족 및 평생학습권 보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둘째, 어느 지역이든지 학교는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학교의 학생, 동창, 학부형, 남세자 등 어떤 형태로든 학교와 관련을 맺고 있어 쉽게 친근감을 느끼며 접근할 수 있다. 즉 학교는 모든 사람들을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평생교육체제로 쉽게 들어오게 하는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셋째, 학교는 교육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기능수행에 있어 사회의 여타 기관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넷째, 학교에는 이미 교육에 알맞은 인적·물적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이런 여건은 보다 양질의 평생교육 제공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주14) 교육인적자원부, 전게서, p.185.

4. 學校 平生敎育 運營 現況

초·중등학교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83년 사회교육법 시행으로 시·도 교육청이 사회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시·군·구 교육청의 직·간접적인 행·재정적 지원 아래 지역사회교육협회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도 학부모교실 등 사회교육에 관심을 두고 시행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학교는 학교교육의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열외 취급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열린교육,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이 추진되면서 각급 학교는 주민의 평생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학교는 지역사회와 공존하면서 성장·발전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들은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준비하여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평생교육법의 시행으로 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이 초·중등학교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평생교육 시행 실태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¹⁵⁾

첫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에 의해 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의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각 시·도별 교육부 지원 평생교육시범학교 현황은 다음<표 1>과 같다.

본 시범학교 운영은 각각 2년간(2001.3~2002.12) 운영되며, 전국 16개 시·도의 과제들에 대한 특성으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삶의 질의 향상을 지향함이 4개 지역, 가족 동반 및 지역별 문화적용 활성화 측면이 6개 지역, 특정 주제 해결이 4개 지역, 학교-지역 교육자원 활용 및 프로그램 개발이 2개 지역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각 시·도는 교육부가 지원한 평생교육과제 시행예산에 500만원을 추가해 시범학교에 각각 1,0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주15) 교육인적자원부, 상계서, pp.186-192.

<표 1> 2001년도 교육부 지정 평생교육시범학교 현황

시·도	학교명	과 제
서울	잠실중학교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대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부산	덕성초등학교	서예
대구	삼덕초등학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학교-지역사회 유대강화 방안
인천	신현여자중학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운영
광주	문정초등학교	학부모 교육과 가족동반학습 활동을 통한 평생 교육의 기초 형성
대전	구봉초등학교	ICT교육프로그램 개발활용에 의한 평생교육활성화
울산	월봉초등학교	평생학습교실 운영을 위한 학교·지역사회의 교육자원 활용방안
경기	가평북중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농촌지역문화중심학교 활성화 방안
강원	봉의고등학교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의 구현
충북	진흥초등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충남	서천여자중학교	다양한 성인교육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평생 교육기반조성
전북	진안공업고등학교	통합web사이트를 통한 평생교육 지역중심학교 구축방안
전남	장흥여자중학교	학부모의 취미클럽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평생 교육 활성화 방안
경북	포항중앙초중학교	취미교실의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의 활성화
경남	김해농업고등학교	생명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족문화 교실운영
제주	고산중학교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둘째, 각 시·도 교육청의 주관 아래 자체적으로 평생교육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아래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120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도별 운영학교 수에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주제별로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 및 시설을 활용하고, 특정 주제 중심의 운영이 확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운영기간은 각 시·도별로 1년간 또는 2년간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은 각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급별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특히 학교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측면도 파악되고 있다.

<표 2> 2001년도 각 시·도 교육청 평생교육시범학교 현황

지역	학교수	주 제
서울	12	학교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운영
부산	24	주부과학 등
인천	2	인터넷을 통한 평생교육/사회융합력 신장
광주	2	학교교육과 연계한 학부모 평생교육 실천
대전	1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사회교육 활성화 방안
경기	21	학교교육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 활성화방안
강원	3	학교시설 활용을 통한 평생교육 실천
충북	45	교육청지정 평생교육중심학교운영(11), 교육청지정 평생교육선도교 운영(22), 여성노인교실운영(학교자체예산)(12)
충남	3	학교 특성을 살린 평생교육운영 활성화
전북	2	열린교육을 통한 지역사회교육 활성화
전남	3	학교자원 활용을 통한 평생교육의 활성화
경남	2	취미클럽 활동을 통한 평생학습 의욕고취

셋째, 1개교 1개 이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북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1학교 1개 이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 7,592개의 학교에서 8,647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충북·제주 등에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각급 학교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 제공되고 있으리라 판단된다.

<표 3> 시·도별 1학교 1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2001년)

지역	평생교육사업	학교 수	강좌 수
서울	1개교 1개 이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
부산	1개교 1개 이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56	86
대구	학교시설 이용한 평생교육 강좌 개설	364	912
인천	1교 1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55	641
광주	전학교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172	-
대전	1개교 1강좌 이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36	597
울산	1개교당 2-10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60	1,229
경기	1개교 1강좌 이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311	2,449
강원	1개교당 1-3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89	829
충북	-	-	-
충남	1개교 1강좌 이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전북	1개교 1강좌 이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842(대상)	-
전남	1개교 1강좌 이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25	947
경북	1개교 1강좌 이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
경남	1개교 1강좌 이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82	957
제주	-	-	-

넷째, 기타 각 시·도별로 특색 있는 평생교육사업 및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노인교육시범학교 7개교, 학부모 교육 143개교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인천광역시는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3), 노인교실운영학교 지원(5), 지정된 시범학교에 평생교육사를 배치(8)하여 학교평생교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특색사업 선정 추진, 경기도는 자체운영학교 우수교 지원(총3억), 평생교육 연구회를 조직·운영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평생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 평생교육 협의 주관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비율과 학교당 프로그램 참가인원 수를 주요내

용으로 삼아 알아본 결과 아래<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시·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의 비율은 평균 81.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¹⁶⁾

<표 4>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비율

지역	전체 학교수	평생교육 강좌 개설학교	
		학교수	운영학교 비율
서울	1,165	536	46.0
부산	562	530	94.3
대구	362	358	98.9
인천	354	350	99
광주	238	238	100
대전	231	224	97
울산	158	158	100
경기	1,508	1,310	86.9
강원	672	672	100
충북	432	428	99.1
충남	724	624	86.2
전북	742	606	81.7
전남	860	531	61.74
경북	965	745	77.2
경남	848	654	65.87
제주	176	176	100
계	9,997	8,140	81.4

자료 : 2001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자료를 합산한 것임.

다음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의 내용에서는 여가선용 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직업·전문 강좌, 일반·교양 강좌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의 비율증가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의 증가는 매우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 교육청 중심의 평생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이라는 협의의 인상을 주거나 정량적 평가로 편향되어 실적위주의 보고로 그칠 염려도 있다. 또한 학교중심 평생교육이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학습자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점,

주16) 교육인적자원부, 상계서, p.25-26

성인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와 강사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이 여가선용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실업계고등학교를 이용한 직업·전문 강좌를 중심으로 한 평생직업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¹⁷⁾

<표 5>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비율

지역	전체 학교수	유형별 개설 강좌 수				참여인원 (수강 연인원)
		일반/교양 강좌	여가선용 강좌	직업/전문 강좌	계	
서울	1,165	731	695	293	1,719	808,686
부산	562	35,250	300,231	221,709	557,190	551,288
대구	362	79,628	31,136	23,631	134,395	585,608
인천	354	44,523	299,774	318,676	662,973	627,647
광주	238	97,808	21,710	64,472	183,990	181,855
대전	231	28,453	18,018	10,862	57,333	53,508
울산	158	16,860	104,275	77,395	198,530	334,344
경기	1,508	31,127	88,771	123,960	243,858	206,933
강원	672	24,990	36,430	15,049	76,469	723,834
충북	432	4,265	9,695	9,077	23,037	421,570
충남	724	129,010	217,880	91,690	438,580	407,517
전북	742	33,414	79,611	67,634	180,659	172,962
전남	860	142,604	98,417	90,612	331,633	278,450
경북	965	87,755	106,227	47,921	241,903	221,890
경남	848	990	4,770	4,030	9,790	33,512
제주	176	18,082	13,456	5,173	36,711	54,177
계	9,997	775,490	1,431,096	1,172,184	3,378,770	5,663,781

자료 : 2001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자료를 합산한 것임.

5. 學校 平生教育의 問題點

학교 평생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¹⁸⁾

첫째, 평생교육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이다.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한결같이 업무가 많다고 한다. 평생교육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수업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해주지 않

주17) 교육인적자원부, 상계서, pp.27-28.

주18) 전도근, 「학교 평생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경기교육』 2002 가을(통권156호), pp.40-42.

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잡무의 증가를 느껴 평생교육 업무를 꺼리는 교사가 1/3 이상이나 된다. 평생교육 담당자는 평생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과 수강생 모집, 운영, 입학식과 졸업식, 국민소양교육 등 학교 안에서 또 다른 학교를 운영하는 정도로 업무가 많다. 더욱이 강의까지 같이 맡고 있는 교사는 제대로 쉴 시간조차도 내기 어렵다. 이러한 평생교육 담당자에게 인내만을 요구하는 것은 평생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둘째, 평생교육에 대한 기관장들의 인식 부족이다.

문제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개념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으나, 정작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장들은 공교육이 우선이라는 의식 자체가 우선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무관심은 결국 학교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직 부족이다.

현재 장학사나 연구사 같은 전문직은 과목별로 선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직은 선발하지 않고 있다. 이미 각급 학교에서는 평생교육에 관련된 연구학교나 시범학교가 운영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직이 없어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조언을 듣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관행은 평생교육 연구 시범학교가 연구 시범기간 동안만 형식적으로 발표를 위한 준비를 하여, 연구시범 기간이 끝나면 평생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는 학교로 돌아가게 되어, 이는 결국 국가적으로 예산의 낭비와 평생교육에 대한 형식적인 면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넷째, 평생교육 시범학교의 감소이다.

2001년까지만 해도 교육부 지정 평생교육 시범학교가 10여개 이상이 었지만 올해는 5개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분야보다 평생교육 부문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 시범학교들이 대부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는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더 이상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평생교육 담당자에 대한 포상 기회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포상은 연말에 교육감 표창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것마저도 한 시·군·구에서 1명 정도로 극히 적은 인원이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다. 이러한 포상 대상자의 부족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에 대한 무관심이 될 수 있다. 포상기회의 부족은 담당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애로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섯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부족이다.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어려움 중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부족을 들었으며 이는 결국 수강생의 부족을 가지고 왔다.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345개 학교 중에서 216개 학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강의를 하는 49개 학교까지 합친다면 77%의 학교가 컴퓨터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이는 가장 손쉽게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종이 접기 및 꽃꽂이, 요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담당교사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지역주민들은 좀 더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컴퓨터 환경이 그래픽 환경으로 변하면서 사용법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이제 흥미를 잃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프로그램을 개설해도 수강생이 모이지 않고 있다.

일곱째, 평생교육 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은 유�휴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을 보면 예전에 있던 유�휴 시설마저도 학급 정원 감축이라는 정책에 학생들을 위한 교실마저 부족하여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강의실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특히 제과·제빵 과정 같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강의실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많은 시설을 다시 해야 하므로 학교 재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여덟째,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 부족이다.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주로 공문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44%이며 연수에 의한 경우가 19%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만큼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거나 연수에 의한 기회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평생학습관이나 평생교육 정보센터에 대한 기관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라고 답한 평생교육 담당자가 6.3%에 불과했으며 ‘대충 알고 있다’ 는 60.3%,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답한 사람도 33.3%나 되었다. 이렇게 일반인도 아닌 실제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평생교육관련 업무를 시행하는데 주변 기관과의 협조에 있어서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제도와 법은 있지만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부족으로 본래 취지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아홉째, 평생교육 기관간의 네트워크 미구축 문제이다.

현재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를 비롯한 문화센터, 복지회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기관마다 똑같은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다 보니 경쟁이 심해 수강생을 1~2명을 놓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6. 外國의 學校 平生教育

1) 캐나다의 계속학교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초등학교와 지역사회간의 협력관계는 유산언어교육 프로그램(Heritage Language Education Program)이 대표적이다. 이 유산언어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의 외국어·외국문화교육을 가리키는데 아동의 부모나 조상의 언어와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교육인 것이다. 유산언어교육프로그램은 그 개강 및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개강은 아동의 보호자나 지역사회조직의 제안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 거주 지역사회에 가까운 초등학교에서는 중국어나 베트남어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그리스인 거주지에 가까운 초등학교에는 그리스어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또한 유산언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는 아동의 보호자나 지역사회조직의 대표가 참가해서 초등학교와 사회의 협력이 잘 되도록 활동한다.

이외에도 온타리오주의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학

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에서 다양한 종류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한다. 이것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학교교육에 관한 강좌, 일반교양에 관한 강좌, 제2언어로서의 영어교육 및 기초교육에 관한 강좌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강좌에서는 학부모는 물론 일반 지역사회 주민들이 일하면서 공부한다든지 미진한 공부를 보충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다. 강좌는 야간에 개설되어 있는 것과 하기 휴가중에 개설되어 있어 7월부터 시작하고 수업은 오전, 오후에 행해진다.

이 계속학교는 중등학교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학부모나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어느 한도까지 자신이 과거에 취득한 단위 시수에 더해 현장 직업생활의 경력도 환산하는 등의 학력인정 위주의 강좌가 가장 중심적이며, 그 외에도 학부모 중심의 영어, 프랑스어, 수학, 컴퓨터, 미술, 음악, 수영 등에 이르는 자기계발 강좌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이주해온 학부모와 학생 등을 위해 제2언어로서의 영어교육 및 기초교육에 관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다.¹⁹⁾

2) 일본의 열린학교

일본의 경우, 학교가 학생 교육의 문제를 생각하고 학생의 실태에 부응하는 교육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지역사회와 가정의 협력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형성과 도덕성의 육성을 위해서는 가정 및 지역사회의 협력을 보다 강조한다.

열린학교의 기본 이념은 학생을 둘러싼 가정·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조를 기초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학교와 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은 학교의 교육문제를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이해하고 각각의 장에 대해 발달과제에의 대응을 궁리해 가는 것이다.

또한 교육적 역할이 타인의 아이와 우리 아이가 동일하다고 말하는 의식을 길러 누구의 아이에게도 평등하게 대응하고 어떤 때는 엄하게, 어떤 때는 온순하게 자녀 양육 태도를 육성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가정·지역사회에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각각의 교육기능을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와 가정·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안

주19) Huey B. Long.(1991), *Early Innovators in Adult Education*, London and New York, pp.40-42

점을 두고 있다. ① 학교가 가정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압력을 넣어 그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것 ② 학교 내·외를 통한 학생 생활의 충실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③ 지역사회에 대한 스포츠 활동, 문화활동, 봉사활동, 자연활동 등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형성을 도모하는 것 ④ 평생학습 체계에의 이행을 위해 학교시설의 정비와 학교개방을 촉진하는 것 등이다.²⁰⁾

이는 지역사회의 문화·스포츠 시설의 이용은 물론 학교시설의 개방, 학교의 교육활동과 행사에 학부모와의 협력, 학생의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지역사회주민과 학부모들에게 학교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교육과정, 강사 등까지도 학교에서 제공한다. 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습비를 지원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주민과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필요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개방한다.

이상과 같이 학교가 지역사회 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학교 평생교육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캐나다와 일본은 국가적으로 학교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오랜 역사와 지방정부의 탄탄한 재정지원을 통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높아져 있어 학교가 중심이 된 평생교육 장(場)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스스로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 특징은 학교가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운영하는데 있어 학교와 가정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타 지역사회, 학교와 지역사회 주변 시설과의 연계가 매우 활발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각각의 연계와 협력의 방법은 학교내의 운영방침과 목표에 따라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학교의 교육활동과 행사에의 지역사회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 평생교육의 대부분이 학교 자체의 시설에만 의존하여 학부모 평생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주20) 서순자(1998), 「학부모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35.

7. 先行研究의 考察

1)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도

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학부모 교육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거의 모든 학부모들이 과거 다른 학부모 교육에 한번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²¹⁾

2)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학부모들의 학교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있어서는 학교 평생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는 학부모가 29.1%밖에 되지 않았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있는 학부모가 67.2%로 참여 의사는 있으나 불참여하는 이유로 80.2%의 학부모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²²⁾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시간대는 주로 평일 오후였고, 1회 교육시간은 2시간, 주당 교육회수는 1-2회 그리고 실시기간은 3개월을 가장 많이 운영하였다. 월수강료는 일만원 정도였고, 강사 초빙에 있어서는 시범학교는 외부강사를, 자체운영학교는 학교교사를 많이 활용하였다.

김금순의 논문에서는 주당 학습시간은 주1회 1시간이 가장 많고, 주2회 4시간, 주2회 2시간의 순이었다. 실시 시간대는 주로 평일 오후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방학기간 중에 운영하는 학교는 없었다. 수강료는 1만원 미만이 1/3이 넘었고, 2만원 미만이 28%, 무료가 24% 순이었다. 지도강사는 주로 해당분야 교내 전문교사였으며 외부강사는 22%였다.²³⁾

주21) 박장식(2001),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8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01.

주22) 여정희(2002),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중심 평생교육 요구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95-96.

주23) 김금순(2001),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분석」,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64.

학부모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일반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지식과 교양’이 44.7%로 가장 많았고, ‘자녀교육 문제’가 31.6%, ‘기술습득’이 15.8%의 순으로 나타났다.²⁴⁾

3)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 및 만족도

학부모의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주된 동기를 보면 ‘여가선용과 지식과 정보획득을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자녀교육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란 응답률도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는 40대·50대에 비해 자녀교육에 도움을 받기 위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의 수강자는 대졸 이상의 수강자보다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든지, 자녀교육에 도움을 받기 위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보다는 자신의 취미 및 발전에 관심이 높음을 나타냈다.²⁵⁾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약간 만족한다’가 2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만족한다’가 27.8%, ‘약간 불만이다’가 22.2%, ‘그저 그렇다’가 16.7%로 나타나 지금까지 경험한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의 애로점은 ‘시간 내기가 어렵다’가 3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가 25.9%, ‘돈이 부담이 되었다’가 11.1%로 나타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는 강하나, 시간과 프로그램 문제가 평생교육 참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었다.²⁶⁾

4)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

기존의 선행연구논문에서의 요구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컴퓨터 관련 교육을 1위로 꼽았고, 2위는 교양·오락·취미활동 중심교육을, 3위는 건강·스포츠활동 중심의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교양교육 및 담임과의 상담기회를 제공

주24) 엄현숙(2002), 「학부모·지역 주민들의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53.

주25) 김금순, 전개논문, p.64.

주26) 엄현숙, 전개논문, pp.54-55.

해 주기를 희망하였다.²⁷⁾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는 컴퓨터교육과 영어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건교육과 취미·여가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⁸⁾

여기에 비해 약간 다른 결과도 도출되었다. 학교 평생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사항에 있어서는 자녀 이해와 대화를 위한 상담 능력, 자녀의 학습지도 보조 능력, 자녀의 생활습관 지도 능력 등 자녀지도 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또한 컴퓨터 활용 능력 습득, 외국어 능력 습득 등의 실용성 있는 내용에 대한 요구도 높았고, 손쉬운 응급처치법, 수지침·발맞사지법, 수영·탁구·배드민턴 등의 운동 기능 습득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반면에 민주시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고전 문학 읽기 등을 위한 교양교육, 전통문화 유산 이해를 위한 교육 등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운영 시간에 대한 요구에서는 전체 실시 시간은 3개월을, 주당 교육 횟수로는 교사는 1회 쪽을 선호한 반면, 학부모·주민은 2회 쪽을, 1회 교육시간으로는 모두 2시간 정도를, 그리고 하루 중 교육시간 대로는 교사는 주로 평일 오후를 선호하는 반면, 학부모·주민은 대부분이 평일 오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²⁹⁾ 희망하는 교육 시간에 있어서는 평일 오전 시간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가장 많았다. 월 평균 수입별로는 저소득 가정 학부모는 평일 오후 시간의 교육을 더 희망하였고, 월 소득 200만원 이상의 학부모는 평일 오전 시간의 교육을 더 희망하였다.³⁰⁾

반면에 다른 결과도 있었다. 선호하는 교육시기를 연령, 학력, 학교와의 관계에 상관없이 ‘평일 오후’가 가장 높았다.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은 ‘평일 오전’을 원하는 비율이 47.1%로 40대의 29.8%나 50대의 10.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시간을 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³¹⁾

바람직한 운영 형태는 저녁반을 가장 선호하고, 주1회, 하루 2시간 정도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³²⁾

주27) 이규성(2001), 「학교 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79,82.

주28) 김금순, 전계논문, p.66.

주29) 이규성, 전계논문, p.77.

주30) 여정희(2002), 전계논문, p.94.

주31) 김금순, 전계논문, p.66.

셋째, 평생교육 수강료로는 월 일만원 정도를 희망하였으며, 지도강사로서는 외부강사를, 적절한 수강 인원으로는 11-20명 정도, 평생교육의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는 가정통신문과 지역정보신문을 꼽았다.³³⁾ 평생교육 적정 비용에 대한 요구는 한달에 2-3만원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이는 월평균 수입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³⁴⁾

넷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사 및 학부모·주민이 제안하고 싶은 것으로는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편성, 그리고 전체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학습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³⁵⁾

학교 평생교육의 개선 사항으로 강사 선정을 든 학부모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 내용, 학교 시설, 교육 방법 등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상에서 본 연구 내용인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도, 프로그램 참여 실태, 참여 동기 및 만족도, 운영에 대한 요구 등의 각 주제별로 선행 연구를 고찰해 본 결과 시범학교와 비시범학교, 학부모와 지역주민, 교육대상자의 연령·학력·성별·소득수준별 비교 연구 등은 많았으나, 도시와 농촌의 지역별 실태 및 요구를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또한 각각의 연구 논문마다 평생교육의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조금씩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이는 지역성, 생활 수준, 연령차 등과 관련성이 있겠고, 조사자의 설문 내용이나 형식 등에서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평생교육에 대한 도시와 농촌간의 실태 및 요구 등의 차이를 알아보고, 각 연구물마다의 조금씩 다른 결과들의 재검증을 통해 학부모 대상 초등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32) 엄현숙, 전계논문, p.56.

주33) 이규성, 전계논문, pp.77-78.

주34) 여정희, 전계논문, p.94.

주35) 이규성, 전계논문, p.80.

Ⅲ. 研究 方法

1. 調査 対象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대상은 도·농 복합시인 N시의 시·읍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각각 1개교씩과 면지역의 2개교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학교별 250여부씩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 조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학교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총 234부였으며, 그 중 응답 내용이 부실한 35부를 제외한 209부를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삼았다.

실제 분석에 사용된 209부의 배경변인별 분포는 아래<표 6>과 같다.

<표 6> 조사 대상자의 배경변인별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30대	128	61
	40대	81	39
학력	중졸이하	9	4
	고졸	139	67
	대졸이상	61	29
소득	100만원 미만	25	12
	100-300만원	130	62
	300-500만원	44	21
	500만원 이상	10	5
소재지	시·읍지역	90	43
	면지역	119	57
계		209	

2. 調査 道具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도구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의 설문지이다.

학부모 집단의 각 변인(연령, 학력, 소득수준, 소재지)을 외형적인 준거로 삼고, 문헌 및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도

(5문항)와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10문항), 참여 동기 및 만족도(5문항), 운영 요구(13문항)로 구분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영역별 구성 내용은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설문지의 영역별 구성 내용

영역	문항	설문내용
1)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 조사	1	학교 외 타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2	학교 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 현황
	3	학교 외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4	평생교육을 위해 월 평균 부담할 수 있는 금액
	5	평생교육 기관으로 가장 적당한 곳
2)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6	2002학년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7	2002년 이전의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8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형태
	9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간
	10	학교 평생교육 참여 프로그램 운영 기간
	11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주당 실시 횟수
	12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회당 교육 시간
	13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당 교육비
	14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당 참여 인원
	15	학교 평생교육 참여 프로그램 강사 현황
3)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만족도	16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17	학교 평생교육 강사에 대한 만족도
	18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
	19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만족 이유
	20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불만족 이유
4)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	21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
	22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23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24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당한 운영 시간
	25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정 운영 기간
	26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당 실시 횟수
	27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회당 교육 시간
	28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당 적정 교육비
	29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당 적정 수강 인원
	30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 강사
	31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것
	32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 영역
	33	가장 참여하고 싶은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3. 資料 處理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처리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참여 프로그램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연령, 학력, 소득, 소재지별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을 하였다.

집단간의 차이는 $p<.001$, $P<.01$, $p<.05$ 수준에서 유의도를 검증하였으며, 검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빈도수가 적은 학력별에서의 중졸 이하 및 소득별에서의 1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의 집단은 연구 결과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IV. 研究 結果 및 解釋

1. 平生敎育 프로그램에 對한 參與度 調査

여기서는 학교 외 타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기관 현황,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평생교육을 위해 월 평균 부담할 수 있는 금액 및 평생교육 기관으로 적당한 곳을 알아보려고 한다.

1) 학교 외 타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학교 외의 타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아래 <표 8>과 같이 전체의 57.4%로 참여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8> 학교 외 타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구분		있다(%)	없다(%)	계	
연령 (대)	30	74(58.3)	53(41.7)	127	$\chi^2=.96$ df=1 p=.757
	40	46(56.1)	36(43.9)	82	
학력	중졸이하	4(44.4)	5(55.6)	9	$\chi^2=24.185^{***}$ df=2 p=.000
	고졸	65(46.8)	74(53.2)	139	
	대졸이상	51(83.6)	10(16.4)	61	
소득 (만원)	100미만	9(34.6)	17(65.4)	26	$\chi^2=14.828^{**}$ df=3 p=.002
	100-300	70(53.8)	60(46.2)	130	
	300-500	34(77.3)	10(22.7)	44	
	500이상	7(77.8)	2(22.2)	9	
소재지	시·읍지역	69(76.7)	21(23.3)	90	$\chi^2=23.958^{***}$ df=1 p=.000
	면지역	51(42.9)	68(57.1)	119	
계		120(57.4)	89(42.6)	209	

***p<.001 **p<.01

이를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연령에서는 30대, 40대가 각각 58.3%와 56.1%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력별로는 고졸 집

단에서의 참여 경험은 46.8%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대졸 이상에서는 83.6%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4.185$, $p<.001$). 소득별로는 100-300만원이 53.8%의 참여율을 보였으나 300-500만원의 집단에서는 77.8%로 높게 나타났다($\chi^2=14.828$, $p<.01$). 소재지별로는 면지역이 42.9%인데 비해 시·읍지역에서는 76.7%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chi^2=23.958$, $p<.001$).

이상의 결과를 보면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학력, 고소득층과 문화, 시설적 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누릴 수 있는 시·읍지역이 환경이 열악한 면지역에 비해 참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 학교 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 현황

학교 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 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학교 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구분		지방자치 단체	문화센터	사회체육 센터	사설학원	계	
연령 (대)	30	36(50.0)	25(34.7)	5(6.9)	6(8.3)	72	$\chi^2=2.146$
	40	31(63.3)	12(24.5)	3(6.1)	3(6.1)	49	df=3 p=.543
학력	중졸이하	1(20.0)	1(20.0)	2(40.0)	1(20.0)	5	$\chi^2=17.683^{**}$
	고졸	43(67.2)	15(23.4)	3(4.7)	3(4.7)	64	df=6
	대졸이상	23(44.2)	21(40.4)	3(5.8)	5(9.6)	52	p=.007
소득 (만원)	100미만	4(40.0)	2(20.0)	3(30.0)	1(10.0)	10	$\chi^2=13.215$ df=9 p=.153
	100-300	39(57.4)	20(29.4)	3(4.4)	6(8.8)	68	
	300-500	21(60.0)	12(34.3)	1(2.9)	1(2.9)	35	
	500이상	3(37.5)	3(37.5)	1(12.5)	1(12.5)	8	
소재지	시·읍지역	33(48.5)	25(36.8)	4(5.9)	6(8.8)	68	$\chi^2=3.781$
	면지역	34(64.2)	12(22.6)	4(7.5)	3(5.7)	53	df=3 p=.286
계		67(55.4)	37(30.6)	8(6.6)	9(7.4)	121	

**
p<.01

학부모들의 학교 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관을 보면 시청, 교육청,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참여의 55.4%로 가장 많았으며, 백화점이나 언론기관 등 문화센터가 30.6%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사설학원이나 사회체육센터의 수강은 7.4%와 6.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연령, 소득, 소재지별에서는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30대 및 고소득층과 시·읍지역에서 문화센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집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67.2%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는 문화센터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chi^2=17.683$, $p<.01$).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40대 및 저학력, 저소득층과 문화 환경이 열악한 면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3) 학교 외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학교 외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학교 외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시·읍지역		면지역		계	
	인원(명)	백분율(%)	인원(명)	백분율(%)	인원(명)	백분율(%)
컴퓨터	35	25.7	25	26.0	60	25.9
생활영어	12	8.8	2	2.1	14	6.0
자녀교육	21	15.4	11	11.5	32	13.8
음악	3	2.2	6	6.3	9	3.9
풍물	1	0.7	4	4.2	5	2.2
에어로빅	13	9.6	6	6.3	19	8.2
스포츠댄스	7	5.1	2	2.1	9	3.9
꽃꽂이	4	2.9	9	9.4	13	5.6
도예	3	2.2	1	1.0	4	1.7
종이공예	10	7.4	3	3.1	13	5.6
서예	5	3.7	0	0	5	2.2
요리	2	1.5	2	2.1	4	1.7
기타	20	14.7	25	26.0	45	19.4
계	136	100	96	100	232	100

시·읍지역의 조사대상자 90명에서 136개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 면지역의 119명에서의 96개에 비해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컴퓨터 교육으로 전체의 25.9%였으며 자녀교육도 13.8%의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시·읍지역에서는 에어로빅, 종이공예, 스포츠댄스 등에서, 면지역에서는 꽃꽂이, 풍물, 음악 등에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읍지역에서 켈트(6명), 독서교육(4명) 등에서, 면지역에서는 수지침(5명)과 건강교실(5명) 등에서 참여도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컴퓨터 교육을 위해 타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문화 환경적 조건이 유리한 시·읍지역에서 학교 외 기관의 평생교육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4) 평생교육을 위해 월 평균 부담할 수 있는 금액

평생교육을 위해 월 평균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11>에서 볼 수 있듯이 10만원 미만이 전체의 7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11> 평생교육을 위한 월 부담액

구분		전혀 없다	10만원 미만	10만원- 30만원	30만원 이상	계	
연령 (대)	30	11(8.6)	100(78.1)	13(10.2)	4(3.1)	128	$\chi^2=3.164$
	40	8(9.9)	67(82.7)	6(7.4)	0(0)	81	df=3 p=.367
학력	중졸이하	1(11.1)	8(88.9)	0(0)	0(0)	9	$\chi^2=16.906^{**}$
	고졸	15(10.8)	115(82.7)	6(4.3)	3(2.2)	139	df=6
	대졸이상	3(4.9)	44(72.1)	13(21.3)	1(1.6)	61	p=.010
소득 (만원)	100미만	4(16.0)	20(80.0)	1(4.0)	0(0)	25	$\chi^2=12.651$
	100-300	12(9.2)	106(81.5)	9(6.9)	3(2.3)	130	df=9
	300-500	2(4.5)	35(79.5)	7(15.9)	0(0)	44	p=.179
	500이상	1(10.0)	6(60.0)	2(20.0)	1(10.0)	10	
소재지	시·읍지역	4(4.4)	71(78.9)	13(14.4)	2(2.2)	90	$\chi^2=8.836^*$
	면지역	15(12.6)	96(80.7)	6(5.0)	2(1.7)	119	df=3 p=.032
계		19(9.1)	167(79.9)	19(9.1)	4(1.9)	209	

** p<.01 * p<.05

월 평균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를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연령별 및 소득별로는 30대와 고소득층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월10-30만원을 부담할 수 있다는 비율이 대졸이상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x^2=16.906$, $p<.01$). 소재지별로는 시·읍지역에서 4.4%만이 ‘전혀 없다’ 였으나 면지역에서는 12.6%나 된 반면, 10-30만원을 부담할 수 있다는 비율은 시·읍지역에서 14.4%, 면지역에서는 5.0%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8.836$, $p<.05$).

따라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평생교육을 위해 월 평균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이 비율은 40대, 저학력, 저소득층 및 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 평생교육 기관으로 가장 적당한 곳

평생교육 기관으로 가장 적당한 곳으로는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평생교육 기관으로 가장 적당한 곳

구분		행정 관청	학교	복지 시설	대학 부설	계	
연령 (대)	30	45(35.4)	46(36.2)	31(24.4)	5(3.9)	127	$x^2=6.389$
	40	16(19.5)	36(43.9)	27(32.9)	3(3.7)	82	$df=3$ $p=.094$
학력	중졸이하	1(11.1)	4(44.4)	4(44.4)	0(0)	9	$x^2=11.049$
	고졸	41(29.5)	62(44.6)	30(21.6)	6(4.3)	139	$df=6$
	대졸이상	19(31.1)	16(26.2)	24(39.3)	2(3.3)	61	$p=.087$
소득 (만원)	100미만	5(19.2)	12(46.2)	7(26.9)	2(7.7)	26	$x^2=7.024$
	100-300	42(32.6)	51(39.5)	32(24.8)	4(3.1)	129	$df=9$
	300-500	11(25.0)	14(31.8)	17(38.6)	2(4.5)	44	$p=.635$
	500이상	3(30.0)	5(50.0)	2(20.0)	0(0)	10	
소재지	시·읍지역	32(36.0)	23(25.8)	32(36.0)	2(2.2)	89	$x^2=14.289^{**}$
	면지역	29(24.2)	59(49.2)	26(21.7)	6(5.0)	120	$df=3$ $p=.003$
계		61(29.2)	82(39.2)	58(27.8)	8(3.8)	209	

$^{**} p<.01$

초·중·고등학교가 전체의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관청이 29.2%, 사회복지관이나 마을회관이 2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를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30대 연령층에서는 행정관청(35.4%)을, 40대에서는 학교(43.9%)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였다. 학력별로는 고졸에서는 학교, 대졸 이상에서는 복지시설이나 행정관청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소재지별로는 시·읍지역에서는 행정관청이나 복지시설을, 면지역에서는 학교를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4.289$, $p<.01$)

2. 學校 平生教育 프로그램 參與 實態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및 형태, 시간, 운영 기간, 주당 실시 횟수, 회당 교육 시간, 프로그램당 교육비와 참여 인원, 강사 현황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2002학년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2002년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2002학년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시·읍지역		면지역		계	
	인원(명)	백분율(%)	인원(명)	백분율(%)	인원(명)	백분율(%)
컴퓨터	23	56.1	31	57.4	54	56.8
생활영어	1	2.4	0	0	1	1.1
자녀교육	4	9.8	2	3.7	6	6.3
음악	0	0	0	0	0	0
풍물	1	2.4	5	9.3	6	6.3
에어로빅	2	4.9	1	1.9	3	3.2
스포츠댄스	0	0	2	3.7	2	2.1
꽃꽂이	1	2.4	0	0	1	1.1
도예	1	2.4	0	0	1	1.1
종이공예	0	0	1	1.9	1	1.1
서예	3	7.3	1	1.9	4	4.2
요리	0	0	3	5.6	3	3.2
기타	5	12.2	8	14.8	13	13.7
계	41	100	54	100	95	100

시·읍지역의 조사대상자 90명에서 41개(46.0%), 면지역의 119명에서의 54개(45.0%)로 비슷한 빈도수를 보였으나 백분율은 참가 프로그램 수를 참여대상자의 인원수로 나눈 단순비교이므로 실제 참여율과는 차이가 있다.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컴퓨터 교육으로 시·읍지역에서 23명(56.1%), 면지역은 31명(57.4%)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시·읍지역에서는 자녀교육과 서예 등에서, 면지역에서는 풍물, 요리강좌 등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수를 보였고, 통계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읍지역에서 과학교실(3명), 면지역에서는 수지침(3명)의 참여빈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2002년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컴퓨터 수강률이 빈도수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각급 학교의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컴퓨터 교육에 치우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2002년 이전 학교 평생교육 참여 프로그램

2002년 이전 학교 평생교육 참여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14>에서 보듯 전체의 49.5%가 컴퓨터교육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빈도를 보였다.

<표14> 2002년 이전 학교 평생교육 참여 프로그램

	시·읍지역		면지역		계	
	인원(명)	백분율(%)	인원(명)	백분율(%)	인원(명)	백분율(%)
컴퓨터	49	53.3	70	47.0	119	49.4
생활영어	2	2.2	4	2.7	6	2.5
자녀교육	8	8.7	0	0	8	3.3
음악	9	9.8	3	2.0	12	5.0
풍물	1	1.1	11	7.4	12	5.0
에어로빅	3	3.3	1	0.7	4	1.7
스포츠댄스	0	0	7	4.7	7	2.9
꽃꽂이	2	2.2	5	3.4	7	2.9
도예	1	1.1	2	1.3	3	1.2
종이공예	4	4.3	13	8.7	17	7.1
서예	7	7.6	5	3.4	12	5.0
요리	2	2.2	14	9.4	16	6.6
기타	4	4.3	14	9.4	18	7.5
계	92	100	149	100	241	100

이밖에 시·읍지역에서는 자녀교육과 음악, 서예 등에서, 면지역에서는 요리, 종이공예, 풍물 등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비교적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의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형태가 컴퓨터 교육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급 학교에 컴퓨터 교실이 설비되어 있고, 학교에서 개설하기 쉬운 프로그램이라 학부모의 요구에 쉽게 부응할 수 있었던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3)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형태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형태는 아래의 <표15>와 같다.

<표15>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형태

구분		상설제	주말제	계절제	수시	계	
연령 (대)	30	65(53.7)	9(7.4)	10(8.3)	37(30.6)	121	$\chi^2=2.608$ df=3 p=.456
	40	42(52.5)	4(5.0)	12(15.0)	22(27.5)	80	
학력	중졸이하	5(55.6)	1(11.1)	2(22.2)	1(11.1)	9	$\chi^2=6.167$ df=6 p=.405
	고졸	66(49.3)	9(6.7)	17(12.7)	42(31.3)	134	
	대졸이상	36(62.1)	3(5.2)	3(5.2)	16(27.6)	58	
소득 (만원)	100미만	11(47.8)	0(0)	4(17.4)	8(34.8)	23	$\chi^2=11.620$ df=9 p=.236
	100-300	65(52.0)	12(9.6)	15(12.0)	33(26.4)	125	
	300-500	24(55.8)	0(0)	3(7.0)	16(37.2)	43	
	500이상	7(70.0)	1(10.0)	0(0)	2(20.0)	10	
소재지	시·읍지역	52(60.5)	6(7.0)	6(7.0)	22(25.6)	86	$\chi^2=4.428$ df=3 p=.219
	면지역	55(47.8)	7(6.1)	16(13.9)	37(32.2)	115	
계		107(53.2)	13(6.5)	22(10.9)	59(29.4)	201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형태는 전체의 53.2%가 상설제 운영에 참여했으며, 다음으로는 필요에 따라 개강하는 수시 운영 참여자의 비

율이 29.4%로 높은 편이었다.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30대 연령층 및 고학력, 고소득층, 시·읍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상설제 운영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계절제는 40대, 저학력, 저소득, 면지역 학부모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상설제 운영 형태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나, 여름·겨울방학의 농한기중인 계절제 운영 형태에의 참여는 도시지역 학부모들에 비해 제반 학습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학부모들과 40대, 저학력, 저소득층에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4)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간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간

구분		오전	오후	저녁	계	
연령 (대)	30	83(66.4)	37(29.6)	5(2.4)	122	$\chi^2=4.342$ df=3 p=.227
	40	43(52.4)	35(42.7)	4(4.9)	85	
학력	중졸이하	3(37.5)	4(50.0)	1(12.5)	8	$\chi^2=10.219$ df=6 p=.116
	고졸	90(65.2)	45(32.6)	3(2.1)	138	
	대졸이상	33(54.1)	23(37.7)	5(8.2)	61	
소득 (만원)	100미만	11(44.0)	12(48.0)	2(8.0)	25	$\chi^2=17.582^*$ df=9 p=.040
	100-300	83(64.8)	40(31.3)	5(3.9)	128	
	300-500	25(56.8)	19(43.2)	0(0)	44	
	500이상	7(70.0)	1(10.0)	2(20.0)	10	
소재지	시·읍지역	58(65.2)	27(30.3)	4(4.5)	89	$\chi^2=1.595$ df=3 p=.660
	면지역	68(57.6)	45(38.1)	5(4.2)	118	
계		126(60.9)	72(34.8)	9(4.3)	207	

* p<.05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간을 보면 오전 시간이 전체의 60.9%로 높게 나타났고 오후 시간은 34.8%, 저녁 시간은 4.3%였다.

이를 배경 변인별로 살펴보면 연령에서 30대는 오전 시간이 66.4%로 40대는 오후 시간이 42.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소득별로는 100-300만원대는 오전시간, 300-500만원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오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chi^2=17.582$, $p<.05$).

소재지별로는 시·읍지역에서는 오전시간이 65.2%로 면지역의 57.6%에 비해 높았으며, 오후 시간은 시·읍지역이 30.3%인데 비해 면지역이 38.1%로 다소 높았으나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간은 오전 시간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30대 연령층과 시·읍 거주지에서는 오전 시간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40대 연령층 및 면지역 학부모들은 오후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5) 학교 평생교육 참여 프로그램 운영 기간

학교 평생교육 참여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보면 다음 <표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개월 미만이 전체의 51.0%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저학력층에서는 3개월 미만의 단기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높은 반면 고학력층에서는 상대적으로 3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높았다. 소재지별에서 살펴보면 면지역에서는 3개월 미만이 61%로 특히 높게 나타난 반면 시·읍지역에서는 3개월 미만이 37.5%, 6개월 미만이 31.8%, 6개월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도 2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등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4.833$, $p<.01$).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3개월 미만의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높았으나, 고학력층과 시·읍지역에서는 3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높은 반면 저학력층 및 면지역에서는 3개월 미만의 단기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17> 학교 평생교육 참여 프로그램 운영 기간

구분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계	
연령 (대)	30	7(5.6)	62(50.0)	32(25.8)	23(18.5)	124	$\chi^2=.461$ df=3 p=.927
	40	3(3.7)	43(52.4)	21(25.6)	15(18.3)	82	
학력	중졸이하	0(0)	7(77.8)	1(11.1)	1(11.1)	9	$\chi^2=8.405$ df=6 p=.210
	고졸	7(5.1)	75(55.1)	31(22.8)	23(16.9)	136	
	대졸이상	3(4.9)	23(37.7)	21(34.4)	14(23.0)	61	
소득 (만원)	100미만	1(4.2)	15(62.5)	2(8.3)	6(25.0)	24	$\chi^2=11.179$ df=9 p=.264
	100-300	9(7.0)	62(48.4)	34(26.6)	23(18.0)	128	
	300-500	0(0)	24(54.5)	12(27.3)	8(18.2)	44	
	500이상	0(0)	4(40.0)	5(50.0)	1(10.0)	10	
소재지	시·읍지역	3(3.4)	33(37.5)	28(31.8)	24(27.3)	88	$\chi^2=14.833^{**}$ df=3 p=.002
	면지역	7(5.9)	72(61.0)	25(21.2)	14(11.9)	118	
계		10(4.9)	105(51.0)	53(25.7)	38(18.4)	206	

$^{**}p<.01$

6)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당 실시 횟수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당 실시 횟수는 다음의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2회가 전체의 61.2%로 높게 나타났고 주1회가 25.7%, 주3회가 11.2%였으나 주4회 이상은 1.9%로 매우 낮았다.

이를 각 배경변인별로 주2회 참여 비율을 비교해 보면 30대 연령층에서 62.1%, 40대에서는 59.8%로 비슷했고, 학력별로는 고졸이 63.5%인 반면 대졸 이상에서는 55.0%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100-300만원에서 63.0%로 300-500만원의 5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시·읍지역에서는 60.7%, 면지역은 61.2%로 비슷했다. 전체적으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18>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당 실시 횟수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연령 (대)	30	33(26.6)	77(62.1)	11(8.9)	3(2.4)	124	$\chi^2=1.973$ df=3 p=.578
	40	20(24.4)	49(59.8)	12(14.6)	1(1.2)	82	
학력	중졸이하	2(22.2)	6(66.7)	0(0)	1(11.1)	9	$\chi^2=6.839$ df=6 p=.336
	고졸	32(23.4)	87(63.5)	16(11.7)	2(1.5)	137	
	대졸이상	19(31.7)	33(55.0)	7(11.7)	1(1.7)	60	
소득 (만원)	100미만	5(20.0)	17(68.0)	2(8.0)	1(4.0)	25	$\chi^2=9.180$ df=9 p=.421
	100-300	35(27.6)	80(63.0)	10(7.9)	2(1.6)	127	
	300-500	12(27.3)	22(50.0)	9(20.5)	1(2.3)	44	
	500이상	1(10.0)	7(70.0)	2(20.0)	0(0)	10	
소재지	시·읍지역	23(25.8)	55(61.8)	8(9.0)	3(3.4)	89	$\chi^2=2.324$ df=3 p=.508
	면지역	30(25.6)	71(60.7)	15(12.8)	1(0.9)	117	
계		53(25.7)	126(61.2)	23(11.2)	4(1.9)	206	

이를 각 배경변인별로 주2회 참여 비율을 비교해 보면 30대 연령층에서 62.1%, 40대에서는 59.8%로 비슷했고, 학력별로는 고졸이 63.5%인 반면 대졸 이상에서는 55.0%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100-300만원에서 63.0%로 300-500만원의 5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시·읍지역에서는 60.7%, 면지역은 61.2%로 비슷했다. 전체적으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7)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회당 교육 시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회당 교육 시간은 아래 <표1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1회당 교육 시간은 1-2시간이 7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19>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회당 교육 시간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3-4시간	4시간 이상	계	
연령 (대)	30	21(16.5)	103(81.1)	2(1.6)	1(0.8)	127	$\chi^2=2.979$ df=3 p=.395
	40	16(19.5)	62(75.6)	4(4.9)	0(0)	82	
학력	중졸이하	4(44.4)	5(55.6)	0(0)	0(0)	9	$\chi^2=17.370^{**}$ df=6 p=.008
	고졸	15(10.8)	117(84.2)	6(4.3)	1(0.7)	139	
	대졸이상	18(29.5)	43(70.5)	0(0)	0(0)	61	
소득 (만원)	100미만	6(23.1)	19(73.1)	1(3.8)	0(0)	26	$\chi^2=22.918^{**}$ df=9 p=.006
	100-300	22(17.1)	102(79.1)	5(3.9)	0(0)	129	
	300-500	7(15.9)	37(84.1)	0(0)	0(0)	44	
	500이상	2(20.0)	7(70.0)	0(0)	1(10.0)	10	
소재지	시·읍지역	18(20.2)	71(79.8)	0(0)	0(0)	89	$\chi^2=5.762$ df=3 p=.124
	면지역	19(15.8)	94(78.3)	6(5.0)	1(0.8)	120	
계		37(17.7)	165(78.9)	6(2.9)	1(0.5)	209	

$^{**} p<.01$

이를 각 배경변인별로 1회당 1-2시간 참여 비율을 비교해 보면 30대 연령층에서 81.1%, 40대에서는 75.6%로 30대 연령층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이 84.2%, 대졸 이상은 70.5%로 고졸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chi^2=17.370$, $p<.01$). 소득별로는 100-300만원에서 79.1%, 300-500만원은 84.1%로 300-500만원층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chi^2=22.918$, $p<.01$). 이상에서 보면 학교 평생교육 참여 프로그램의 1회당 교육 시간은 1-2시간이 많았으며, 30대 및 고졸학력과 300-500만원대의 소득층에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8)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당 교육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당 교육비는 아래의 <표20>과 같다. 프로그램당 교육비는 3만원 미만이 전체의 50.5%로 높게 나타났으며 무료 및 3-5만원이 21.6%로 같았다. 반면에 5만원 초과는 전체의 6.3%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20>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당 교육비

구분		무료	3만원 미만	3-5만원	5만원 초과	계	
연령 (대)	30	29(22.8)	59(46.5)	29(22.8)	10(7.9)	127	$\chi^2=2.856$ df=3 p=.414
	40	16(19.8)	46(56.8)	16(19.8)	3(3.7)	81	
학력	중졸이하	2(22.2)	3(33.3)	3(33.3)	1(11.1)	9	$\chi^2=1.749$ df=6 p=.941
	고졸	29(20.9)	72(51.8)	30(21.6)	8(5.8)	139	
	대졸이상	14(23.3)	30(50.0)	12(20.0)	4(6.7)	60	
소득 (만원)	100미만	7(26.9)	11(42.3)	5(19.2)	3(11.5)	26	$\chi^2=9.016$ df=9 p=.436
	100-300	30(23.4)	66(51.6)	26(20.3)	6(4.7)	128	
	300-500	6(13.6)	25(56.8)	11(25.0)	2(4.5)	44	
	500이상	2(20.0)	3(30.0)	3(30.0)	2(20.0)	10	
소재지	시·읍지역	19(21.6)	45(51.1)	18(20.5)	6(6.8)	88	$\chi^2=.019$ df=3 p=.979
	면지역	26(21.7)	60(50.0)	27(22.5)	7(5.8)	120	
계		45(21.6)	105(50.5)	45(21.6)	13(6.3)	208	

이를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3만원 미만이 30대 연령층에서 46.5%인데 비해 40대에서는 56.8%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비 부담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소재지별로는 시·읍지역과 면지역의 3만원 미만이 각각 51.1%와 50.5%로 비슷하게 나타나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결과에서 보듯이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당 교육비는 3만원 미만이 많았고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을 많이 하고 있었다.

9)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당 참여 인원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당 참여 인원은 아래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30명이 전체의 7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21>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당 참여 인원

구분		10명 미만	10-30명	31-50명	51명 이상	계	
연령 (대)	30	11(8.7)	101(79.5)	15(11.8)	0(0)	127	$\chi^2=6.780$ df=3 p=.079
	40	3(3.8)	59(74.7)	15(19.0)	2(2.5)	79	
학력	중졸이하	1(12.5)	7(87.5)	0(0)	0(0)	8	$\chi^2=4.098$ df=6 p=.663
	고졸	9(6.6)	108(78.8)	18(13.1)	2(1.5)	137	
	대졸이상	4(6.6)	45(73.8)	12(19.7)	0(0)	61	
소득 (만원)	100미만	1(3.8)	20(76.9)	4(15.4)	1(3.8)	26	$\chi^2=8.136$ df=9 p=.521
	100-300	10(7.9)	97(77.0)	18(14.3)	1(0.8)	126	
	300-500	1(2.3)	37(84.1)	6(13.6)	0(0)	44	
	500이상	2(20.0)	6(60.0)	2(20.0)	0(0)	10	
소재지	시·읍지역	5(5.6)	61(68.5)	22(24.7)	1(1.1)	89	$\chi^2=13.138^{**}$ df=3 p=.004
	면지역	9(7.7)	99(84.6)	8(6.8)	1(0.9)	117	
계		14(6.8)	160(77.7)	30(14.6)	2(1.0)	206	

** p<.01

프로그램당 참여 인원 10-30명에서 각 배경변인별로 비율을 살펴보면 30대 연령층에서 79.5%로, 40대에서는 74.7%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 각각 78.8%, 73.8%를 보였다. 소득별로는 100-300만원에서 77.0%, 300-500만원에서의 84.1%와 편차를 보였다. 소재지별로는 시·읍지역이 68.5%, 면지역이 84.6%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3.138$, $p<.01$).

이상의 결과를 보면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당 참여 인원은 전체적으로 10-30명이 가장 많았으나 시·읍지역에서는 31-50명에 대한 응답도 24.7%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10) 학교 평생교육 참여 프로그램 강사 현황

학교 평생교육 참여 프로그램 강사 현황은 아래의 <표22>와 같다.

<표22> 학교 평생교육 참여 프로그램 강사 현황

구분	학교교사	외부강사	학부모	지역인사	계	
연령	30	24(19.0)	97(77.0)	2(1.6)	3(2.4)	126 $\chi^2=.775$
(대)	40	17(21.3)	58(72.5)	2(2.5)	3(3.8)	80 $df=3$ $p=.855$
중졸이하		2(22.2)	6(66.7)	0(0)	1(11.1)	9 $\chi^2=7.283$
학력	고졸	23(16.9)	106(77.9)	2(1.5)	5(3.7)	136 $df=6$
	대졸이상	16(26.2)	43(70.5)	2(3.3)	0(0)	61 $p=.295$
100미만		7(28.0)	15(60.0)	1(4.0)	2(8.0)	25 $\chi^2=7.493$
소득	100-300	23(18.1)	98(77.2)	2(1.6)	4(3.1)	127 $df=9$
(만원)	300-500	10(22.7)	33(75.0)	1(2.3)	0(0)	44 $p=.586$
	500이상	1(10.0)	9(90.0)	0(0)	0(0)	10
시·읍지역		28(31.5)	57(64.0)	2(2.2)	2(2.2)	89 $\chi^2=13.442^{**}$
소재지	면지역	13(11.1)	98(83.8)	2(1.7)	4(3.4)	117 $df=3$ $p=.004$
계		41(19.9)	155(75.2)	4(1.9)	6(2.9)	206

$^{**} p<.01$

위의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외부 강사가 전체의 75.2%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교 교사는 19.9%로, 지역인사와 학부모는 각각 2.9%와 1.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각 배경변인별로 외부강사의 수강 비율을 살펴보면 30대 연령에서 77.0%, 고졸 학력층에서 77.9%, 그리고 소득별로 100-300만원에서 77.2%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시·읍지역이 64.0%인데 비해 면지역은 83.8%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3.442$, $p<.01$).

이상의 결과를 보면 학교 평생교육 참여 프로그램 강사는 외부 전문 강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특히 면지역에서 외부 강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시·읍 지역에서보다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시·읍지역에서는 학교 교사의 비율이 31.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學校 平生敎育 프로그램 參與 動機 및 滿足度

여기서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만족·불만족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는 아래의 <표23>과 같다. 참여 동기는 자아발전 및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38.5%,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31.7%, 교양 및 취미와 여가 선용을 위해서 29.3%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선생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참여했다는 응답은 0.5%에 불과했다.

<표23>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구분	자녀교육 도움	자아 발전	여가 선용	선생님 과대화	계	
연령 (대)	30	42(33.1)	46(36.2)	39(30.7)	0(0)	127 $\chi^2=2.525$
	40	23(29.5)	33(42.3)	21(26.9)	1(1.3)	78 $df=3$ $p=.471$
중졸이하	5(71.4)	2(28.6)	0(0)	0(0)	7	$\chi^2=8.858$
학력	고졸	44(32.1)	52(38.0)	41(29.9)	0(0)	137 $df=6$
	대졸이상	16(26.2)	25(41.0)	19(31.1)	1(1.6)	61 $p=.182$
100미만	10(45.5)	6(27.3)	6(27.3)	0(0)	22	
소득	100-300	40(31.0)	51(39.5)	37(28.7)	1(0.8)	129 $\chi^2=3.175$
(만원)	300-500	12(27.3)	18(40.9)	14(31.8)	0(0)	44 $df=9$ $p=.957$
	500이상	3(30.0)	4(40.0)	3(30.0)	0(0)	10
시·읍지역	28(31.8)	32(36.4)	27(30.7)	1(1.1)	88	$\chi^2=1624.$
소재지	면지역	37(31.6)	47(40.2)	33(28.2)	0(0)	117 $df=3$ $p=.654$
계		65(31.7)	79(38.5)	60(29.3)	1(0.5)	205

이를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저학력과 저소득층에서는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고학력과 고소득층에서는 자아발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참여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40대에서, 소재지별로는 면소재지에서 자아발전 및 지적 욕구 충족을 위한다는 응답이 각각 42.3%와 40.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학교 평생교육 강사에 대한 만족도

학교 평생교육 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표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37.0%를 보인 반면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표24> 학교 평생교육 강사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계	
연령 (대)	30	50(39.4)	74(58.3)	3(2.4)	127	$\chi^2=1.230$ df=2 p=.541
	40	27(33.3)	53(65.4)	1(1.2)	81	
학력	중졸이하	4(44.4)	5(55.6)	0(0)	9	$\chi^2=1.119$ df=4 p=.891
	고졸	51(37.0)	85(61.6)	2(1.4)	138	
	대졸이상	22(36.1)	37(60.7)	2(3.3)	61	
소득 (만원)	100미만	13(52.0)	12(48.0)	0(0)	25	$\chi^2=9.032$ df=6 p=.172
	100-300	50(38.8)	77(59.7)	2(1.6)	129	
	300-500	12(27.3)	31(70.5)	1(2.3)	44	
	500이상	2(20.0)	7(70.0)	1(10.0)	10	
소재지	시·읍지역	29(32.6)	58(65.2)	2(2.2)	89	$\chi^2=1.342$ df=2 p=.511
	면지역	48(40.3)	69(58.0)	2(1.7)	119	
계		77(37.0)	127(61.1)	4(1.9)	208	

강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을 각 배경변인별로 비교해 보면 30대 연령층에서 39.3%로 40대의 33.3%에 비해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시·

읍지역에서 32.6%, 면지역에서 40.3%를 보여 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면에서는 고졸에 비해 대졸 이상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약간 낮았으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저소득층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강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37.0%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집단별로는 40대, 고학력, 고소득층 및 시·읍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아래의 <표2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25>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계	
연령 (대)	30	42(33.6)	80(64.0)	3(2.4)	125	$\chi^2=.388$ df=2 p=.824
	40	29(35.4)	50(61.1)	3(3.7)	82	
학력	중졸이하	3(33.3)	6(66.7)	0(0)	9	$\chi^2=16.953$ df=4 p=.002**
	고졸	53(38.7)	84(61.3)	0(0)	137	
	대졸이상	15(24.6)	40(65.6)	6(9.8)	61	
소득 (만원)	100미만	14(56.0)	11(44.0)	0(0)	25	$\chi^2=21.569$ *** df=6 p=.001
	100-300	45(35.2)	82(64.1)	1(0.8)	128	
	300-500	9(20.5)	30(68.2)	5(11.4)	44	
	500이상	3(30.0)	7(70.0)	0(0)	10	
소재지	시·읍지역	22(24.7)	62(69.7)	5(5.6)	89	$\chi^2=9.332$ ** df=2 p=.009
	면지역	49(41.5)	68(57.6)	1(0.8)	118	
계		71(34.3)	130(62.8)	6(2.9)	207	

*** p<.001 ** p<.01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62.8%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34.3%를 보인 반면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을 각 배경변인별로 비교해 보면 학력면에서 고졸에서 38.7%를 보였으나 대졸 이상에서는 24.6%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6.953$, $p<.01$).

소득별로는 100-300만원에서의 35.2%에 비해 300-500만원대에서 20.5%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chi^2=21.569$, $p<.001$).

소재지별로는 시·읍지역의 24.7%에 비해 면지역의 41.5%에서 만족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9.332$, $p<.01$).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프로그램 내용의 만족도는 34.3%로 낮게 나타났다으며, 고학력, 고소득 및 시·읍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4)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만족 이유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 이유는 아래 <표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적인 보람과 만족을 느낀다’가 37.9%로 높았다.

<표26>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만족 이유

구분	인간 관계	자질 향상	내적 만족	자녀 교육	계	
연령 (대)	30	15(17.2)	25(28.7)	28(32.2)	19(21.8)	87 $\chi^2=6.806$
	40	5(8.6)	20(34.5)	27(46.6)	6(10.3)	58 $df=3$ $p=.078$
학력	중졸이하	0(0)	0(0)	4(50.0)	4(50.0)	8 $\chi^2=9.925$
	고졸	13(13.5)	32(33.3)	37(38.5)	14(14.6)	96 $df=6$
	대졸이상	7(17.1)	13(31.7)	14(34.1)	7(17.1)	41 $p=.128$
소득 (만원)	100미만	2(9.1)	5(22.7)	9(40.9)	6(27.3)	22 $\chi^2=5.453$
	100-300	13(14.3)	31(34.1)	32(35.2)	15(16.5)	91 $df=9$
	300-500	4(16.0)	8(32.0)	11(44.0)	2(8.0)	25 $p=.793$
	500이상	1(14.3)	1(14.3)	3(42.9)	2(28.6)	7
소재지	시·읍지역	10(16.9)	17(28.8)	20(33.9)	12(20.3)	59 $\chi^2=1.857$
	면지역	10(11.6)	28(32.6)	35(40.7)	13(15.1)	86 $df=3$ $p=.603$
계		20(13.8)	45(31.0)	55(37.9)	25(17.2)	145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의 향상을 가져왔다’가 31.0%로 나타났으며,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었다(17.2%)’나 ‘인간관계의 발전을 가져왔다(13.8%)’의 응답률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를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연령 및 소재지별에서는 30대와 시·읍지역에서는 인간관계 및 자녀교육에서, 40대와 면지역에서는 자질 향상 및 내적 만족의 응답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면에서는 고졸은 자질 향상, 대졸 이상에서는 인간관계의 응답 비율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100-300만원은 자질 향상, 300-500만원에서는 인간관계 및 내적 만족이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불만족 이유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아래의 <표2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27>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불만족 이유

구분	내용 시설	강사 자질	시간 주기	교육비	계	
연령	30	28(58.3)	3(6.3)	15(31.3)	2(4.2)	48
(대)	40	16(50.0)	0(0)	12(37.5)	4(12.5)	32
						$\chi^2=4.242$ df=3 p=.236
중졸이하	1(25.0)	0(0)	1(25.0)	2(50.0)	4	$\chi^2=12.722^*$
학력	고졸	29(58.0)	1(2.0)	17(34.0)	3(6.0)	50
	대졸이상	14(53.8)	2(7.7)	9(34.6)	1(3.8)	26
						df=6 p=.048
100미만	6(60.0)	0(0)	2(20.0)	2(20.0)	10	$\chi^2=14.056$
소득	100-300	20(47.6)	0(0)	19(45.2)	3(7.1)	42
(만원)	300-500	15(68.2)	2(9.1)	4(18.2)	1(4.5)	22
	500이상	3(50.0)	1(16.7)	2(33.3)	0(0)	6
						df=9 p=.120
시·읍지역	22(53.7)	3(7.3)	15(36.6)	1(2.4)	41	$\chi^2=5.954$
소재지	면지역	22(56.4)	0(0)	12(30.8)	5(12.8)	39
						df=3 p=.114
계	44(55.0)	3(3.8)	27(33.8)	6(7.5)	80	

* p<.05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나 시설이 열악해서’가 55.0%로 가장 높았고, ‘교육 시간이나 주기가 적당하지 않아서’가 33.8%로 나타난 반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7.5%)’나 ‘강사의 자질이 부족해서(3.8%)’의 응답률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연령 및 소재지별에서는 40대와 시·읍지역에서는 ‘교육 시간이나 주기가 적당하지 않아서’가, 30대와 면지역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나 시설이 열악해서’의 응답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100-300만원대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나 시설이 열악해서’와 ‘교육 시간이나 주기가 적당하지 않아서’가 각각 47.6%와 45.2%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으나, 300-500만원의 고소득층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나 시설이 열악해서’가 68.2%로 ‘교육 시간이나 주기가 적당하지 않아서’의 18.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에서는 교육비(50.0%)에서, 고졸에서는 내용과 시설면(58.0%)에서, 그리고 대졸 이상에서는 교육 시간이나 주기가 적당하지 않은데 대한 불만족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chi^2=12.772$, $p<.05$).

4. 學校 平生教育 프로그램 運營에 對한 要求

학교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요구에서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 및 참여 의향, 바람직한 운영 형태, 적당한 운영 시간, 적정 운영 기간을 설문 조사하였다.

또한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당 실시 횟수, 회당 교육시간과 적정 교육비 및 적정 수강 인원, 희망 강사,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것, 희망 영역과 참여하고 싶은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13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각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은 아래 <표2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62.2%로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26.8%였으며, ‘그저 그렇다(9.1%)’와 ‘필요없음(1.9%)’이란 의견은 응답률이 낮았다.

이를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30대가 ‘매우 필요하다(26.0%)’와 ‘대체로 필요하다(63.8%)’가 전체의 89.8%로 40대의 87.8%보다 약간 많았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78.8%), 고졸(87.8%), 대졸 이상(93.5%)에서 보듯이 고학력으로 갈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소재지별에서는 시·읍지역이 93.3%로 면지역의 85.9%에 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28>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

구분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그저 그렇다	필요 없음	계	
연령 (대)	30	33(26.0)	81(63.8)	11(8.7)	2(1.6)	127	$\chi^2=.469$ df=3 p=.926
	40	23(28.0)	49(59.8)	8(9.8)	2(2.4)	82	
학력	중졸이하	1(11.1)	6(66.7)	2(22.2)	0(0)	9	$\chi^2=12.296$ df=6 p=.056
	고졸	30(21.6)	92(66.2)	13(9.4)	4(2.9)	139	
	대졸이상	25(41.0)	32(52.5)	4(6.6)	0(0)	61	
소득 (만원)	100미만	6(23.1)	16(61.5)	4(15.4)	0(0)	26	$\chi^2=9.181$ df=9 p=.421
	100-300	34(26.4)	83(64.3)	8(6.2)	4(3.1)	129	
	300-500	15(34.1)	23(52.3)	6(13.6)	0(0)	44	
	500이상	1(10.0)	8(80.0)	1(10.0)	0(0)	10	
소재지	시·읍지역	24(27.0)	59(66.3)	5(5.6)	1(1.1)	89	$\chi^2=2.981$ df=3 p=.395
	면지역	32(26.7)	71(59.2)	14(11.7)	3(2.5)	120	
계		56(26.8)	130(62.2)	19(9.1)	4(1.9)	209	

2)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대한 의견은 아래 <표29>와 같다.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은 필요한 경우에만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전체의 68.0%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2.4%에 불과했다.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은 29.6%로 이를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가 34.6%로 30대의 26.4%에 비해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소득별로 100-300만원대에서 대졸 이상 및 300-500만원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재지별에서는 면지역(35.0%)에서 시·읍지역(22.5%)에 비해 참여 의향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꼭 참여하고 싶은 의견과 필요에 따라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전체의 97.6%로 매우 높게 나타나 학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29>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구분	꼭 참여	필요시 참여	참여 않겠음	계	
연령 (대)	30	33(26.4)	88(70.4)	4(3.2)	125
	40	28(34.6)	52(64.2)	1(1.2)	81
					$\chi^2=2.168$ df=2 p=.338
중졸이하	1(11.1)	8(88.9)	0(0)	9	$\chi^2=2.575$
학력 고졸	43(31.6)	89(65.4)	4(2.9)	136	df=4
대졸이상	17(27.9)	43(70.5)	1(1.6)	61	p=.631
100미만	6(24.0)	19(76.0)	0(0)	25	
소득 (만원)	100-300	43(33.9)	81(63.8)	3(2.4)	127
	300-500	11(25.0)	31(70.5)	2(4.5)	44
	500이상	1(10.0)	9(90.0)	0(0)	10
					$\chi^2=5.639$ df=6 p=.465
시·읍지역	20(22.5)	68(76.4)	1(1.1)	89	$\chi^2=5.438$
소재지 면지역	41(35.0)	72(61.5)	4(3.4)	117	df=2 p=.066
계	61(29.6)	140(68.0)	5(2.4)	206	

3)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로는 다음의 <표3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운영 형태로 상설제를 선호하는 응답률이 전체의 51.7%로 높았으며, 수시 운영은 29.5%를 보였다. 주말제나 계절제 운영 형태의 선호도는 낮았다.

상설제 운영 형태의 선호도를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40대 연령층과 대졸 이상의 학력층에서 30대와 고졸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보면 100-300만원대(51.6%)에서보다 300-500만원대(67.4%)에서 높게 나타나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7.721$, $p<.001$)

<표30>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구분		상설제	주말제	계절제	수시	계	
연령 (대)	30	62(49.2)	15(11.9)	7(5.6)	42(33.3)	126	$\chi^2=2.678$
	40	45(55.6)	13(16.0)	4(4.9)	19(23.9)	81	df=3 p=.444
학력	중졸이하	3(33.3)	2(22.2)	2(22.2)	2(22.2)	9	$\chi^2=11.218$
	고졸	66(48.2)	22(16.1)	6(4.4)	43(31.4)	137	df=6
	대졸이상	38(62.3)	4(6.6)	3(4.9)	16(26.2)	61	p=.082
소득 (만원)	100미만	6(23.1)	10(38.5)	3(11.5)	7(26.9)	26	
	100-300	66(51.6)	17(13.3)	6(4.7)	39(30.5)	128	$\chi^2=27.721^{***}$
	300-500	29(67.4)	0(0)	1(2.3)	13(30.2)	43	df=9 p=.001
	500이상	6(60.0)	1(10.0)	1(10.0)	2(20.0)	10	
소재지	시·읍지역	47(52.8)	11(12.4)	6(6.7)	25(28.1)	89	$\chi^2=.894$
	면지역	60(50.8)	17(14.4)	5(4.2)	36(30.5)	118	df=3 p=.827
계		107(51.7)	28(13.5)	11(5.3)	61(29.5)	207	

p<.001

4)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당한 운영 시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당한 운영 시간으로는 다음 <표31>에서 보듯이 오전시간이 62.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오후는 29.7%로 나타난 반면 저녁시간을 선호하는 경향은 8.1%에 불과했다.

오전 시간대를 선호하는 경우를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30대 연령층에서 40대보다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학력별에서 대졸 이상에서, 소득별로는 300-500만원대에서, 소재지별로는 시·읍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이상의 결과를 해석하면 학부모가 생각하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당한 운영 시간은 오전시간이 많았으며,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40대 와 고학력층 및 고소득층에서 그리고 면지역보다는 시·읍지역에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1>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당한 운영 시간

구분		오전	오후	저녁	계
연령 (대)	30	83(65.4)	36(28.3)	8(6.3)	127
	40	47(57.3)	26(31.7)	9(11.0)	82
					$\chi^2=2.047$ df=2 p=.359
학력	중졸이하	2(22.2)	4(44.4)	3(33.3)	9
	고졸	82(59.0)	47(33.8)	10(7.2)	139
	대졸이상	46(75.4)	11(18.0)	4(6.6)	61
					$\chi^2=15.868^{**}$ df=4 p=.003
소득 (만원)	100미만	8(30.8)	13(50.0)	5(19.2)	26
	100-300	80(62.0)	40(31.0)	9(7.0)	129
	300-500	34(77.3)	7(15.9)	3(6.8)	44
	500이상	8(80.0)	2(20.0)	0(0)	10
					$\chi^2=18.126^{**}$ df=6 p=.006
소재지	시·읍지역	66(74.2)	18(20.2)	5(5.6)	89
	면지역	64(53.3)	44(36.7)	12(10.0)	120
					$\chi^2=9.426^{**}$ df=2 p=.009
계		130(62.2)	62(29.7)	17(8.1)	209

$^{**} p<.01$

5)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정 운영 기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정 운영 기간은 아래의 <표32>에 나타난 것처럼 3개월 미만과 6개월 미만이 각각 48.6%와 35.1%로 나타나 6개월 이상(13.9%) 및 1개월 미만(2.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를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연령과 소득별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학력별에서는 대졸 이상에서는 6개월 미만, 고졸에서는 3개월 미만에서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재지별로는 시·읍지역에서는 6개월 미만, 면지역에서는 3개월 미만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여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chi^2=9.325$, $p<.05$).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집단별로 분석해보면 고학력층 및 시·읍지역 학부모들이 6개월 정도의 좀 더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2>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정 운영 기간

구분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계	
연령						
30	3(2.4)	62(48.8)	44(34.6)	18(14.2)	127	$\chi^2=.038$
(대)						
40	2(2.5)	39(48.1)	29(35.8)	11(13.6)	81	$df=3$
						$p=.998$
중졸이하	0(0)	5(55.6)	1(11.1)	3(33.3)	9	$\chi^2=11.476$
학력						
고졸	5(3.6)	72(52.2)	47(34.1)	14(10.1)	138	$df=6$
대졸이상	0(0)	24(39.3)	25(41.0)	12(19.7)	61	$p=.075$
100미만	1(3.8)	15(57.7)	6(23.1)	4(15.4)	26	
소득						
100-300	4(3.1)	61(47.7)	47(36.7)	16(12.5)	128	$\chi^2=6.973$
(만원)						
300-500	0(0)	22(50.0)	14(31.8)	8(18.2)	44	$df=9$
500이상	0(0)	3(30.0)	6(60.0)	1(10.0)	10	$p=.640$
시·읍지역	1(1.1)	34(38.2)	37(41.6)	17(19.1)	89	$\chi^2=9.325^*$
소재지						
면지역	4(3.4)	67(56.3)	36(30.3)	12(10.1)	119	$df=3$
						$p=.025$
계	5(2.4)	101(48.6)	73(35.1)	29(13.9)	208	

* $p<.05$

6)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당 실시 횟수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당 실시 횟수는 아래 <표33>과 같다.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당 실시 횟수는 주2회의 선호도가 전체의 62.5%로 가장 높았으며, 주4회 이상은 0.5%에 불과해 매일 참여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 하였다.

주2회 운영에 대한 선호도의 비율을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력별에서 대졸 이상에서 70.5%를 보여 고졸의 60.1%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chi^2=30.131$, $p<.001$). 그밖에 30대 연령층, 300-500만원대의 소득층 및 시·읍지역에서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를 요약하면 학부모들은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당 적정 운영 횟수를 주2회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주2회의 선호도는 40대 및 고학력, 고소득층과 시·읍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33>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당 실시 횟수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연령						
30	15(11.9)	77(61.1)	34(27.0)	0(0)	126	$\chi^2=2.518$
(대) 40	11(13.4)	53(64.6)	17(20.7)	1(1.2)	82	$df=3$
						$p=.472$
중졸이하	2(22.2)	4(44.4)	2(22.2)	1(11.1)	9	$\chi^2=30.131^{***}$
학력 고졸	14(10.1)	83(60.1)	41(29.7)	0(0)	138	$df=6$
대졸이상	10(16.4)	43(70.5)	8(13.1)	0(0)	61	$p=.000$
100미만	5(19.2)	15(57.7)	5(19.2)	1(3.8)	26	$\chi^2=10.611$
소득 100-300	16(12.5)	78(60.9)	34(26.6)	0(0)	128	$df=9$
(만원) 300-500	5(11.4)	29(65.9)	10(22.7)	0(0)	44	$p=.303$
500이상	0(0)	8(80.0)	2(20.0)	0(0)	10	
시·읍지역	11(12.4)	58(65.2)	19(21.3)	1(1.1)	89	$\chi^2=2.155$
소재지 면지역	15(12.6)	72(60.5)	32(26.9)	0(0)	119	$df=3$
						$p=.541$
계	26(12.5)	130(62.5)	51(24.5)	1(0.5)	208	

 $p<.001$

7)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회당 교육 시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회당 교육 시간은 다음의 <표34>에 나타난 것과 같이 1-2시간이 전체의 8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30대 및 고졸학력과 면지역에서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chi^2=10.187$, $p<.05$). 아울러 학부모들은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시간은 1회당 1-2시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4>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회당 교육 시간

구분		1시간 미만	1-2 시간	3-4 시간	4시간 이상	계	
연령 (대)	30	11(8.7)	114(90.5)	1(0.8)	0(0)	126	$\chi^2=2.205$ df=2 p=.332
	40	7(8.6)	71(87.7)	3(3.7)	0(0)	81	
학력	중졸이하	3(33.3)	6(66.7)	0(0)	0(0)	9	$\chi^2=10.187^*$ df=4 p=.037
	고졸	8(5.8)	129(92.8)	2(1.4)	0(0)	139	
	대졸이상	7(11.9)	50(84.7)	2(3.4)	0(0)	59	
소득 (만원)	100미만	3(11.5)	23(88.5)	0(0)	0(0)	26	$\chi^2=3.891$ df=6 p=.691
	100-300	12(9.4)	114(89.1)	2(1.6)	0(0)	128	
	300-500	3(7.0)	38(88.4)	2(4.7)	0(0)	43	
	500이상	0(0)	10(100.0)	0(0)	0(0)	10	
소재지	시·읍지역	10(11.5)	76(87.4)	1(1.1)	0(0)	87	$\chi^2=1.896$ df=2 p=.388
	면지역	8(6.7)	109(90.8)	3(2.5)	0(0)	120	
계		18(8.7)	185(89.4)	4(1.9)	0(0)	207	

* $p<.05$

8)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당 적정 교육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당 적정한 교육비는 다음 <표35>에서와 같이 전체의 67.5%가 3만원 미만이 적당하다고 보았으며 5만원 이상은 0.5%에 불과했다.

3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사람을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30대와 대졸 이상, 시·읍지역에서의 응답 비율이 약간 높았다.

무료라고 응답한 비율은 40대와 고졸 및 100-300만원의 소득층, 면지역에서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3-5만원 미만은 상대적으로 고학력, 고소득층, 시·읍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학부모들이 학교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데 따른 1회당 교육비 지출은 전체의 99.5%가 5만원 미만으로 응답하고 있어 교육비에 따른 부담감을 나타냈다.

<표35>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당 적정 교육비

구분		무료	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계	
연령 (대)	30	14(11.2)	87(69.6)	23(18.4)	1(0.8)	125	$\chi^2=2.199$ df=3 p=.532
	40	14(17.3)	52(64.2)	15(18.5)	0(0)	81	
학력	중졸이하	4(44.4)	4(44.4)	1(11.1)	0(0)	9	$\chi^2=14.466^*$ df=6 p=.025
	고졸	22(16.2)	90(66.2)	23(16.9)	1(0.7)	136	
	대졸이상	2(3.3)	45(73.8)	14(23.0)	0(0)	61	
소득 (만원)	100미만	9(34.6)	15(57.7)	2(7.7)	0(0)	26	$\chi^2=19.129^*$ df=9 p=.024
	100-300	15(11.9)	88(69.8)	23(18.3)	0(0)	126	
	300-500	2(4.5)	31(70.5)	10(22.7)	1(2.3)	44	
	500이상	2(20.0)	5(50.0)	3(30.0)	0(0)	10	
소재지	시·읍지역	5(5.6)	63(70.8)	21(23.6)	0(0)	89	$\chi^2=10.598^*$ df=3 p=.014
	면지역	23(19.7)	76(65.0)	17(14.5)	1(0.9)	117	
계		28(13.6)	139(67.5)	38(18.4)	1(0.5)	206	

* p<.05

9)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당 적정 수강 인원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당 수강하는 적정 인원은 아래 <표36>과 같다. 1개의 프로그램당 수강하는 적정 인원을 10-30명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88.5%로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10-30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40대와 고졸 및 300-500만원대 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36>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당 적정 인원

구분		10명 미만	10-30명 미만	30-50명 미만	50명 이상	계	
연령 (대)	30	13(10.3)	108(85.7)	5(4.0)	0(0)	126	$\chi^2=3.148$
	40	3(3.7)	76(92.7)	3(3.7)	0(0)	82	$df=2$ $p=.207$
학력	중졸이하	1(11.1)	7(77.8)	1(11.1)	0(0)	9	$\chi^2=4.177$
	고졸	8(5.8)	124(89.9)	6(4.3)	0(0)	138	$df=4$
	대졸이상	7(11.5)	53(86.9)	1(1.6)	0(0)	61	$p=.117$
소득 (만원)	100미만	0(0)	22(84.6)	4(15.4)	0(0)	26	
	100-300	11(8.6)	113(88.3)	4(3.1)	0(0)	128	$\chi^2=15.634^*$
	300-500	3(6.8)	41(93.2)	0(0)	0(0)	44	$df=6$
	500이상	2(20.0)	8(80.0)	0(0)	0(0)	10	$p=.016$
소재지	시·읍지역	6(6.7)	79(88.8)	4(4.5)	0(0)	89	$\chi^2=.354$
	면지역	10(8.4)	105(88.2)	4(3.4)		119	$df=2$ $p=.838$
계		16(7.7)	184(88.5)	8(3.8)	0(0)	208	

* $p<.05$

10)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 강사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는 다음의 <표37>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의 89.3%가 외부 강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강사 희망 응답률을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40대 연령층 및 대졸 이상에서, 소재지별로는 시·읍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소득별로는 300-500만원대에서 외부강사를 희망하는 비율이 100%로 나타나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chi^2=23.085$, $p<.001$).

이상의 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외부 전문 강사를 대부분 원하고 있었으며 특히 대졸 이상과 고소득층에서의 외부강사를 희망하는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표37>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 강사

구분	학교 교사	외부 강사	학부모	지역 인사	계	
연령 (대)	30	13(10.4)	110(88.0)	0(0)	2(1.6)	125
	40	5(6.2)	74(91.4)	0(0)	2(2.5)	81
						$\chi^2=1.258$ df=2 p=.533
중졸이하	2(25.0)	6(75.0)	0(0)	0(0)	8	$\chi^2=3.154$
학력	고졸	12(8.7)	123(89.1)	0(0)	3(2.2)	138
	대졸이상	4(6.7)	55(91.7)	0(0)	1(1.7)	60
						df=4 p=.532
100미만	5(19.2)	18(69.2)	0(0)	3(11.5)	26	
소득	100-300	12(9.4)	114(89.8)	0(0)	1(0.8)	127
(만원)	300-500	0(0)	43(100)	0(0)	0(0)	43
	500이상	1(10.0)	9(90.0)	0(0)	0(0)	10
						$\chi^2=23.085^{***}$ df=6 p=.001
시·읍지역	7(8.0)	80(90.9)	0(0)	1(1.1)	88	$\chi^2=.664$
소재지	면지역	11(9.3)	104(88.1)	0(0)	3(2.5)	118
						df=2 p=.717
계	18(8.7)	184(89.3)	0(0)	4(1.9)	206	

*** p<.001

11)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의 요건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요건으로는 <표38>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의 69.4%가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평생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인식(19.4%), 학부모 교육을 위한 우수한 강사 확보(6.3%), 학부모 교육에 대한 학교장 및 교사의 적극적 의지(4.9%)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학교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연령별에서는 30대가 71.2%를 보여 40대에 비해 많았으며 특히 학교장 및 교사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30대에서는 0%인데 비해 40대에서는 12.3%로 나타나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6.756$, $p<.001$)

<표38>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의 요건

구분		학부모 이해	학교 의지	시설 확보	강사 확보	계	
연령 (대)	30	27(21.6)	0(0)	89(71.2)	9(7.2)	125	$\chi^2=16.756^{***}$ df=3 p=.001
	40	13(16.0)	10(12.3)	54(66.7)	4(4.9)	81	
학력	중졸이하	1(11.1)	1(11.1)	5(55.6)	2(22.2)	9	$\chi^2=8.786$ df=6 p=.186
	고졸	31(22.8)	7(5.1)	92(67.6)	6(4.4)	136	
	대졸이상	8(13.1)	2(3.3)	46(75.4)	5(8.2)	61	
소득 (만원)	100미만	8(32.0)	2(8.0)	13(52.0)	2(8.0)	25	$\chi^2=9.109$ df=9 p=.427
	100-300	26(20.5)	5(3.9)	87(68.5)	9(7.1)	127	
	300-500	5(11.4)	3(6.8)	35(79.5)	1(2.3)	44	
	500이상	1(10.0)	0(0)	8(80.0)	1(10.0)	10	
소재지	시·읍지역	13(14.8)	1(1.1)	64(72.7)	10(11.4)	88	$\chi^2=12.540^{**}$ df=3 p=.006
	면지역	27(22.9)	9(7.6)	79(66.9)	3(2.5)	118	
계		40(19.4)	10(4.9)	143(69.4)	13(6.3)	206	

*** $p<.001$

** $p<.01$

소득별로는 100-300만원에서 68.5%의 응답률을 보인데 비해 300-500만원대에서는 79.5%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소재지별로는 시·읍지역에서 면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2.540$, $p<.01$).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학부모들은 학교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 영역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아래 <표39>와 같이 컴퓨터나 외국어 같은 기초교육과 취미·교양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전체의 51.7%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자녀교육(23.4%)과 부업 및 취업교실(15.3%) 순이었으며 건강 및 보건교육은 9.6%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39>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 영역

구분	취미 교양	부업 취업	건강 보건	자녀 교육	계	
연령 (대)	30	63(49.6)	22(17.3)	11(8.7)	31(24.4)	127 $\chi^2=1.531$
	40	45(54.9)	109(12.2)	9(11.0)	18(22.0)	82 $df=3$ $p=.675$
학력	중졸이하	5(55.6)	3(33.3)	0(0)	1(11.1)	9 $\chi^2=12.558$
	고졸	63(45.3)	23(16.5)	18(12.9)	35(25.2)	139 $df=6$
	대졸이상	40(65.6)	6(9.8)	2(3.3)	13(21.3)	61 $p=.051$
소득 (만원)	100미만	12(46.2)	3(11.5)	4(15.4)	7(26.9)	26 $\chi^2=9.558$
	100-300	60(46.5)	25(19.4)	12(9.3)	32(24.8)	129 $df=9$
	300-500	29(65.9)	4(9.1)	3(6.8)	8(18.2)	44 $p=.387$
	500이상	7(70.0)	0(0)	1(10.0)	2(20.0)	10
소재지	시·읍지역	54(60.7)	7(7.9)	7(7.9)	21(23.6)	89 $\chi^2=8.514^*$
	면지역	54(45.0)	25(20.8)	13(10.8)	28(23.3)	120 $df=3$ $p=.036$
계		108(51.7)	32(15.3)	20(9.6)	49(23.4)	209

* $p<.05$

이를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취미·교양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30대에 비해 40대 연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과 소득별에서는 대졸 이상과 300-500만원대의 고소득층에서 취미나 교양 프로그램을 원하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고졸 및 100-300만원의 소득층에서는 부업 및 취업교실과 자녀교육, 건강교실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소재지별로는 취미·교양을 선호하는 경향이 시·읍지역에서 60.7%를 나타내 면지역의 45.0%에 비해 높은 반면 부업이나 취업교실을 선호하는 경향은 각각 7.9%와 20.8%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chi^2=8.514$, $p<.05$)

이상의 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은 취미·교양 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프

로그램으로 응답했다. 집단별로는 40대, 대졸 이상, 고소득층과 시·읍 지역에서 선호도가 더 높았던 데 반해 고졸 및 저소득층과 면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업이나 취업교실을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가장 선호하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장 참여하고 싶은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아래의 <표4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의 16.3%가 컴퓨터교육을 희망했고, 다음으로는 자녀교육과 생활영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읍지역의 40.0% 및 면지역에서의 31.1%가 ‘기타’의 프로그램으로 나타나 선호도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컴퓨터를 제외한 프로그램별 선호도는 소재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시·읍지역에서는 생활영어(10명)와 음악(5명) 등을, 면지역에서는 자녀교육(11명) 및 스포츠댄스(9명) 등에서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밖에 통계표에서 제외된 프로그램중 시·읍지역에서는 단전호흡(7명), 탁구(3명), 수영(3명) 등의 빈도가 높았고, 면지역에서는 수영(11명), 한자교실(6명), 이·미용(4명) 등으로 선호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컴퓨터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기는 했으나 매우 다양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 걱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표40> 가장 선호하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읍지역		면지역		계	
	인원(명)	백분율(%)	인원(명)	백분율(%)	인원(명)	백분율(%)
컴퓨터	13	14.4	21	17.6	34	16.3
생활영어	10	11.0	7	5.9	17	8.1
자녀교육	8	9.0	11	9.2	19	9.1
음악	5	5.6	2	1.7	7	3.3
풍물	2	2.2	4	3.4	6	2.9
에어로빅	3	3.3	7	5.9	10	4.9
스포츠댄스	3	3.3	9	7.6	12	5.7
꽃꽂이	2	2.2	6	5.0	8	3.8
도예	1	1.1	5	4.2	6	2.9
종이공예	4	4.4	6	5.0	10	4.9
서예	2	2.2	2	1.7	4	1.9
요리	1	1.1	2	1.7	3	1.4
기타	36	40.0	37	31.1	73	34.9
계	90	100	119	100	209	100

V. 要約 및 結論

1. 要約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요구를 분석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배경변인별로 조사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도를 알아본다.

둘째,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만족도를 알아본다.

넷째,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처리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참여 프로그램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연령, 학력, 소득, 소재지별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간의 차이는 $p < .001$, $P < .01$, $p < .05$ 수준에서 유의도를 검증하였으며, 검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빈도수가 적은 학력별에서의 중졸 이하 및 소득별에서의 1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 집단은 연구 결과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 조사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학교 외 타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57.4%였다. 학부모들의 학교 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55.4%로 가장 많았다.

학교 외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현황을 보면 시·읍지역의 조사대상자 90명에서 136개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 면지역의 119명에서의 96개에 비해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컴퓨터교육으로 전체의 25.9%였으며 자녀교육도 13.8

%의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평생교육을 위해 월 평균 부담할 수 있는 금액으로 10만원 미만이 전체의 7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평생교육 기관으로 가장 적당한 곳으로는 초·중·고등학교가 전체의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행정관청, 사회복지관 순이었다.

2)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2002년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은 시·읍지역 46.0%, 면지역 45.0%의 빈도수를 보였으나 복수 프로그램 참가자를 감안하면 실제 참여율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컴퓨터교육으로 전체의 56.8%의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2002년 이전의 전체 241개 참여 프로그램 중에서도 119개 프로그램이 컴퓨터 교육으로 49.4%였다.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형태는 전체의 53.2%가 상설제 운영에 참여했으며, 참여 시간을 보면 오전시간이 60.9%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3개월 미만이 전체의 51.0%였고, 주당 실시 횟수는 주2회가 6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회당 교육시간은 1-2시간이 78.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당 교육비는 3만원 미만이 50.5%로 많았고, 무료 및 3-5만원이 각각 21.6%, 5만원 초과는 6.3%에 불과했다. 프로그램당 수강 인원은 10-30명이 전체의 77.7%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평생교육 강사로는 외부강사가 전체의 75.2%로 학교 교사의 19.9%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3)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만족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로는 자아발전 및 지적 욕구 충족(38.5%),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함(31.7%), 교양 및 취미와 여가 선용(29.3%)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선생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참여했다는 응답은 0.5%에 불과했다.

학교 평생교육 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61.1%), 만족(37.0%)을 보였으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전체의 62.8%가 보통이라는 응답을 보였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34.3%에 그쳤다.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 이유로는 내적인 보람과

만족(37.9%),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 향상(31.0%)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불만족 이유로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나 시설이 열악해서가 55.0%로 가장 높았고 교육 시간이나 주기가 적당하지 않아서가 33.8%로 나타난 반면, 교육비 과다(7.5%) 및 강사의 자질 부족(3.8%)이라는 응답률은 매우 낮았다.

4)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필요(62.2%), 매우 필요(26.8%)로 전체의 8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68.0%가 필요한 경우에만 참여하겠다고 답했고, 꼭 참여하겠다고는 사람도 29.6%로 나타나 전체의 97.6%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는 상설제를 선호하는 응답률이 전체의 51.7%로 높았고, 적당한 운영 시간은 오전시간이 62.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프로그램의 적정 운영 기간은 3개월 미만과 6개월 미만이 각각 48.6%와 35.1%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당 실시 횟수로는 주2회의 선호도가 62.5%로 가장 높았다. 1회당 교육시간은 전체의 89.4%가 1-2시간이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프로그램당 적정 교육비는 전체의 67.5%가 3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5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5%에 불과했다.

프로그램당 적정 수강 인원으로는 10-30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8.5%로 매우 높았으며, 희망하는 프로그램 강사로는 전체의 89.3%가 외부강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필요한 것으로는 전체의 69.4%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원하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기초 및 취미·교양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전체의 51.7%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교육(23.4%), 부업 및 취업교실(15.3%), 건강 및 보건교육(9.6%) 순이었다.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는 전체의 16.3%가 컴퓨터교육을 희망했고 다음으로 자녀교육(9.1%), 생활영어(8.1%) 순이었다. 프로그램 선호도는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소재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시·읍지역에서는 생활영어, 자녀교육, 단전호흡, 면지역에서는 자녀교육, 수영, 스포츠댄스 등의 순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2. 結 論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를 알아본 결과 학교 외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전체의 57.4%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시·읍지역에서 참여율이 높았던 것은 교육·문화적 여건이 면지역에 비해 우수한 결과로 보여진다.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컴퓨터교육이었고, 월평균 평생교육을 위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대부분 10만원 미만으로 응답해 과다한 교육비 지출을 원하지 않았다. 평생교육기관으로 가장 적당한 곳으로 초·중·고등학교를 꼽고 있어, 각급 학교에서의 평생교육 활성화가 시급히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를 보면, 2002년도 프로그램 참여율은 빈도수에서 전체의 45.3%로 나타나고 있으나 복수 프로그램 참여자를 감안하면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컴퓨터교육의 비중이 56.8%로 나타나 2002년 이전의 49.4%에 비해 오히려 더욱 편중 현상을 보여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참여 형태로는 상설제를, 프로그램당 운영 기간은 3개월 미만, 회당 교육시간은 1-2시간, 프로그램당 교육비로는 3만원 미만, 수강인원은 10-30명이 많았고, 강사로는 전체의 75.2%가 외부강사를 채용하고 있었으며 학교 교사의 19.9%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셋째,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로는 자아발전 및 지적 욕구 충족, 자녀교육 정보, 교양·취미 및 여가선용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강사에 대한 만족도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어 우수한 강사 확보와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느꼈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 이유로는 내적인 보람과 만족,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 향상 순으로 응답했고, 불만족 이유로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시설이 열악해서(55.0%), 교육시간이나 주기가 부적당해서(33.8%)의 순으로 나타나 시설 확충 및 교육 시간의 적정성 확보에도 힘써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전체의 89.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97.6%가 참여의사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학교에서는 시설을 제공하고 3만원 미만의 저렴한 교육비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주2회 정도를 1-2시간 정도 교육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필요한 것으로는 전체의 69.4%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기초 및 취미·교양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컴퓨터, 자녀교육, 생활영어 순으로 나타났으나 도시지역에서는 컴퓨터, 생활영어, 자녀교육, 단전호흡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고, 농촌지역은 컴퓨터, 자녀교육, 수영, 스포츠댄스 등의 순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여 거주지별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 및 선호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提 言

학교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 해결이 필요함을 제언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가 명실공히 평생교육의 지역 센터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예산이나 행정을 각급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강좌별로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인근 학교들과 연계된 자료의 개발과 교환 등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시설 외에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와 요구에 따라 사회 평생교육 시설과의 연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교육·문화적 여건이 다소 열악한 도·농 복합시의 몇 개 초등학교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국한시켰으므로 그 대상을 전국적으로, 중등학교까지 확대하여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를 포함하여 조사·연구한다면 더욱 내실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參 考 文 獻

- 곽병선(1999), 『평생교육 요구 분석』,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권이중 · 이상오 공저(2001), 『평생교육-실제편-』, 서울 : 동문사.
- 교육인적자원부(2001), 『평생교육백서(5호)』, 서울 : 남형문화(주).
- 김도수(1994), 『사회교육학』, 서울 : 교육과학사.
- 김금순(2001), 「初等學校 學父母의 平生教育에 대한 認識分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남선(2001), 「平生教育에 관한 研究」,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식(2002), 「평생 · 직업교육을 통한 전 국민 기본역량 강화」, 『교육마당21』 2002.12.
- 김종서 외(1987), 『평생교육 원론』, 서울 : 과학교육사.
- 박영만(2002), 「지식기반 사회의 평생교육」, 인천교육대학교 『教育論叢』 19집.
- 박용현 · 최정숙(1989), 『교육사회학』,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박장식(2001),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8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순자(1998), 「학부모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 신남성초등학교(2001), 「학부모 평생교육 활동을 통한 학교교육의 활성화」, 『월간 학교운영위원회』 2001.10.
- 성해란(2001), 「初等學校 平生教育과 地方自治團體 平生教育 運營에 관한 比較研究」,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엄현숙(2002), 「학부모 · 지역 주민들의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여정희(2002),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중심 평생교육 요구 분석」, 서울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위종운(2002), 「학부모 평생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 학부모 인식 비교」,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규성(2001), 「학교 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진호(1983),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서울 : 대은출판사.
- 전도근(2002), 「학교 평생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경기교육』 2002 가을(통권156호).
- 조용하·안상헌(2001), 『평생교육의 이해』, 서울 : 동문사.
- 조용하(1996), 『사회교육과 여가』, 서울 : 교육과학사.
- 주성민(2002), 「평생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教育評論』 2002年8月號(通卷117號).
- 최돈민(2001),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교육개발』 2001.9~10월호
- 한상길(2001), 『성인평생교육』, 서울 : 양서원.
- 한승희(1997), 「전환기에 선 한국성인교육 연구」 『평생교육 연구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 홍숙희(2002),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경기교육』 2002 가을(통권156호).
- Dave, R. H.(ed), *Foundations of Lifelong Education*, Oxford : Pergamon.
- Huey B. Long.(1991), *Early Innovators in Adult Education*, London and New York.
- Lengrand, P.(1975), *An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Paris : UNESCO press.
- UNESCO(1985), *The development of Adult Education : Aspects and Trends.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Paris, France.

ABSTRACT

A Study on the Realities of Parents' Participation in Elementary School Lifelong Educational Program

Kim, Dong-cheol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realities of particip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ents in lifelong educational programs, analyze its need and provide basic data for its activation. For this purpose, it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parents'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al programs in elementary school, the realities of participation, the motive for participation,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it and the need for it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age, educational level, income and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research was conducted by distributing 250 questionnaires to the parents of students enrolled in one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the urban and town area of 'N' city, the mixed urban and rural city and in two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the myon area. Of the returned questionnaires, 209 ones which those experienced in participation in school lifelong education offered were used as basic data for this study.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al programs. As a result, 57.4%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had experiences in participation in the lifelong educational program sponsored by the institutions other than schools. The higher rate of participation in the urban and town

areas illustrated that the educational and cultural conditions were better than those in the myon area. The program in which they participated most was about computer education. Most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spent less than the average income of 100,000won on lifelong education and did not want to spend an excessive amount of educational expenses on it. They adopted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s most appropriate as the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ndicates that it is very urgent that all levels of school should activate lifelong education for parents.

Second,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the realities of parents' participation in the lifelong educational program provided by schools. It was found that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the school-provided program in 2002 accounted for 45.3% of the total programs in terms of frequency. Considering participants in multiple programs, it was found to be low. Among other things, the relative importance of computer education was shown to be 56.8%, a more disproportionate phenomenon compared to 49.4% before 2002. Therefore, it is urgent to develop a variety of lifelong educational programs tailored to students' parents.

The respondents showed a preference for the permanent system as the form of participation, less than three months as the period of operation per program, one to two hours as the time of education per session, less than 30,000won as the educational expense per program and 10 to 30 persons as the number of enrollees. It was found that 75.2% of the total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employed the outside instructor, which indicates the higher proportion compared to 19.9% for school teacher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motive for participation in school-provided lifelong educational programs was in the ascending orders of meeting self-development and intellectual needs, information on children education, cultivation and hobby and recreation which showed the comparatively even distribution. A

majority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instructors and with the contents of the lifelong educational program was moderate when asked about it. Thi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secure excellent instructors and develop diverse and high quality lifelong educational programs.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reason for satisfaction with the contents of the program was in the ascending orders of inner worth and satisfaction, individual ability and quality. The reason for dissatisfaction with the contents of the program was the poor contents of and facilities for the program(55.0%) and the inadequate time and cycle of education(33.8%).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extend facilities for the lifelong educational programs and secure the propriety of educational time.

Fourth,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the need for operation of the school-provided lifelong educational program. 89.0%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it was needed. When asked about the intention of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97.6%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participated in it. It was found that they hoped that in the facility for the lifelong educational program provided by schools they would receive lifelong education from the invited outside instructor with the low educational expense of less than 30,000won for one to two hours twice a week for less than three months. 69.4%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it was necessary to develop a diversity of lifelong educational programs and secure the facility for them with a view to activating the school-provided lifelong educational program. They showed the tendency to have the highest preference for the basic, hobby and cultural education as their wanted program. It was found that the programs in which they wanted to take the highest part were in the ascending orders of computer, children education and living English. They showed the level of preference in the orders of computer, living English, children education and breathing exercise in the urban area, whereas they showed the level of preference in the orders of computer,

children education, swimming, sports dance and the like. That i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preference according to resid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local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 in developing the school-provided lifelong educational program.

8. 어떤 형태에 참여하셨습니다?
 ① 상설제(연중) ② 주말제(토·일요일 및 공휴일)
 ③ 계절제(여름·겨울방학) ④ 수시(필요에 따라)
9. 참여한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① 오전 ② 오후 ③ 저녁
10. 운영 기간은 어느정도 었습니까?
 ① 1개월 미만 ② 3개월 미만 ③ 6개월 미만 ④ 6개월 이상
11. 주당 실시 횟수는 몇회 었습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12. 프로그램의 1회 교육시간은 어느정도 었습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2시간 ③ 3-4시간 ④ 4시간 이상
13. 한 프로그램의 교육비는 얼마였습니까?
 ① 무료 ② 3만원 미만 ③ 3-5만원 미만 ④ 5만원 이상
14. 한 프로그램에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① 10명 미만 ② 10-30명 미만 ③ 30-50명 미만 ④ 50명 이상
15. 강사는 누구였습니까?
 ① 학교 교사 ② 외부전문강사 ③ 학부모 ④ 지역사회 인사

3)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만족도

16.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② 자아발전 및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③ 교양 및 취미, 여가선용을 위해서
 ④ 선생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17. 강사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만족한다 ② 보통이다 ③ 불만족스럽다
18.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① 만족한다 ② 보통이다 ③ 불만족스럽다

19. 내용이 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인간관계의 발전을 가져왔다
- ②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의 향상을 가져왔다
- ③ 내적인 보람과 만족을 느낀다
- ④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었다

20. 내용이 불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나 시설이 열악해서
- ② 강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 ③ 교육시간이나 주기가 적당하지 않아서
- ④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4)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

21.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대체로 필요하다
-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지 않다

22. 앞으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꼭 참여하고 싶다
- ② 필요한 경우에만 참여하겠다
- ③ 참여하지 않겠다

23. 바람직한 운영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설제(연중) ② 주말제(토·일요일 및 공휴일)
- ③ 계절제(여름·겨울방학) ④ 수시(필요에 따라)

24. 적당한 운영 시간은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오전 ② 오후 ③ 저녁

25. 운영 기간은 어느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개월 미만 ② 3개월 미만 ③ 6개월 미만 ④ 6개월 이상

26. 주당 실시 횟수는 몇회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27. 1회 교육시간은 어느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2시간 ③ 3-4시간 ④ 4시간 이상

28. 한 프로그램의 교육비는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무료 ② 3만원 미만 ③ 3-5만원 미만 ④ 5만원 이상

29. 한 프로그램 수강의 적절한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① 10명 미만 ② 10-30명 미만 ③ 30-50명 미만 ④ 50명 이상

30. 강사로는 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 교사 ② 외부전문강사 ③ 학부모 ④ 지역사회 인사

31. 학교평생교육운영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평생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와 인식
② 학부모 교육에 대한 학교장 및 교사의 적극적 의지
③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보
④ 학부모 교육을 위한 우수한 강사 확보

32. 어떤 영역의 프로그램을 가장 원하십니까?

- ① 기초 및 취미, 교양교육(컴퓨터, 외국어, 일반취미, 법률, 문화 등)
② 부업 및 취업교실(정보처리, 요리, 이·미용, 자수 등)
③ 건강 및 보건교육(성인병 예방, 에어로빅, 환경 등)
④ 부모 및 자녀교육(부모역할, 대화기법 및 상담기법, 독서교육 등)

33. 가장 참여하고 싶으신 것을 하나만 골라 ○표해 주십시오.

(보기에 없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아래 ()안에 써 주십시오.)

컴퓨터, 영어회화, 한자교실, 건강교실, 경제교육, 법률상식, 독서, 논술지도, 서예, 도자기, 꽃꽂이, 글짓기, 문예, 바둑, 장기, 레크레이션, 동양화, 서양화, 한지공예, 악기, 노래, 국악, 판소리, 풍물, 농악, 무용, 사진, 종이접기, 요리, 이·미용, 자수, 헬스, 에어로빅, 단전호흡, 스포츠댄스, 테니스, 배드민턴, 태권, 수영, 배구, 탁구
--

()

※ 감사합니다.